

리아호나



우리에게
**교회가
필요한 이유**

주님께서는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 당신의 교회를 이끄십니다, 12쪽

주가 그의 백성을 시온이라 불렀더라, 24쪽

모든 여성은 신성한 잠재력과 목적을 지니고 있다, 18쪽

여기에
교회가
있다

미국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





주님의 회복된 교회의 행정 본부 건물들이 솔트레이크시티 중심부의 템플스퀘어 주변에 모여 있다. 그곳에는 다음과 같은 몇몇 흥미로운 건물들이 세워져 있다.

1. **교회 역사 도서관:**
후기 성도 교회 역사의 기록 보관소.
2. **교회 사무실 건물:**
교회 여러 부서를 위한 중앙 사무실.
3. **상호부조회 건물:**
본부 초등학교, 청년, 상호부조회 회장단을 위한 본부.
4. **교회 본부 건물:**
제일회장단, 십이사도 정원회, 일부 칠십인 정원회 일원들을 위한 사무실.
5. **조셉 스미스 기념관:**
처음에는 호텔이었으나 현재는 FamilySearch[패밀리서치] 센터, 교회 영화 상영관, 식당, 교회 행정 사무실, 예배실 등이 있음.
6. **솔트레이크 성전:**
2019년 12월에 보수를 위해 문을 닫기 전까지 전 세계에서 운영되던 166개 성전 중 하나였음. 2024년에 다시 열 예정임.
7. **북 방문자 센터:**
템플스퀘어에 오는 3백만에서 5백만 명의 방문자를 맞이하는 장소.
8. **솔트레이크 태버나클:**
템플스퀘어 태버나클 합창단의 본거지.
9. **교회 역사 박물관:**
교회의 역사를 예술과 공예품을 통해 알리는 곳.
10. **가족 역사 도서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계보 도서관.
11. **컨퍼런스 센터:**
현재 연차 대회가 열리는 곳으로, 수용 인원은 21,000명. 공연이나 문화 행사에도 쓰임.



사진 촬영: 조 루크

성전 봉사를 통해 성역을 행하십시오

8



주님의 교회는 언제나
그분의 신성한 계획에 따라
조직되었다
델린 에이치 옥스 회장
12



하나님의 특별한
딸들
진 비 빙엄
18



주가 그의 백성을 시온이라 불렀더라
쉐런 유뱅크
24



교회 회원으로서 받는 축복

올 해는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들과 함께 조셉 스미스를 방문하신 지 200주년이 되는 특별한 해입니다. 첫번째 시헌으로부터 10년이 흐른 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가 조직되었고, 이 교회는 우리의 구원에 필수적인 의식과 복음의 가르침, 그리고 신권 권세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점점 더 세속화되어 감에 따라 많은 사람들은 조직화된 종교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의구심을 품습니다. 그들은 굳이 교회에 소속되지 않더라도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을 많은 곳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번 호 『리아호나』에서는 주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조직하신 몇 가지 이유와 함께 어떻게 우리가 그분의 회복된 교회를 통해 복음 진리를 더 잘 배우게 되고, 그분의 영에 더욱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어 우리 삶에서 선을 행할 수 있게 되는지를 깊이 탐구합니다.

제가 24쪽 기사에서 언급한 것처럼, 교회 회원들은 조셉 스미스의 가르침, 즉 “이 교회에서든 다른 교회에서든 … 굶주린 자를 먹이고, 헐벗은 자를 입히며, … 고통받는 자를 위로해 주”라는 가르침을 따릅니다. 후기 성도 자선회와 함께 일하면서, 저는 교회가 매년 100개 이상의 국가에 막대한 지원을 제공하는 광경을 목격해 왔습니다. 교회 회원들이 조금씩 기부해 주신 덕분에 전 세계에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생활필수품과 그 밖의 많은 것으로 축복받고 있습니다.

12쪽에서 델린 에이치 옥스 회장은 주님께서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 그분의 교회를 이끄시는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18쪽에서는 상호부조회 회장단에서 저와 함께 봉사하시는 진 비 빙엄 자매님께서 여성의 영향력과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일함으로써 서로가 신성한 잠재력에 도달하도록 돕는 방법에 관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개인적으로나 한 백성으로서 축복하시어서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 더 높고 거룩한 방식으로 성역을 베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쉐런 유뱅크 자매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단 제1보좌

목차

- 5 교회에 속하는 것은 마치 ... ☺
- 6 신앙의 초상: 올리세스와 에밀리아 마이오—포르투갈 포르투 ☺
- 8 성역의 원리: 성전 봉사를 통해 성역을 행하십시오
- 12 주님께서는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 당신의 교회를 이끄십니다
델린 에이치 옥스 회장
주님의 교회는 언제나 그분의 신성한 계획에 따라 조직되었다.
- 18 하나님의 특별한 딸들
진 비 빙엄
모든 여성은 신성한 잠재력과 목적을 지니고 있다.
- 24 주가 그의 백성을 시온이라 불렀더라
쉐런 유뱅크
하나님의 방식으로 행해지는 인도주의적 사업을 통해 시온이 건설된다.
- 28 우본 와드는 할 수 있습니다! ☺
아카닛 사프라스트
태국의 한 와드가 모든 회원을 교회에 참석시키려고 열성을 다해 노력한다.
- 30 후기 성도의 소리 ☺
아일랜드의 성도들이 스미스 가족 농장에서 간증을 나눔. 조셉 스미스와의 연결 고리가 신앙을 강화함. 한 가족이 빗속을 걸어 교회에 감. 어린 자녀를 둔 부부가 새로운 부름에 의문을 품음.
- 34 와서 나를 따르라: 몰몬경 ☺
이 주간 기사를 활용하여 이번 달 몰몬경 학습을 더욱 훌륭히 해낸다.
- 38 내 연차 대회 노트: 2019년 10월 연차 대회 ☺
- 40 우리 가정, 우리 가족: 부두에서 받은 영감 ☺
아파티아 실라가
한 아버지가 다툼이 있었던 자신의 가족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기도한다.

☺ 짧은 기사

☞ 와서 나를 따르라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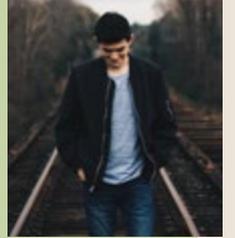
표지 삽화: 데이비드 그린

섹션

청년 성인

42

소외감을 느끼는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모두 그분의 교회에 속한다. 교회 안에서 자리를 찾은 방법에 관한 청년 성인들의 이야기를 읽어 본다.



청소년 연차 대회 학습 노트를 가지고 대회를 준비한다.



어린이 『친구들』 이노스처럼 기도하는 법을 배운다. 사모아에 사는 교회 회원들에 관한 이야기를 읽는다.



3월 온라인 전용 기사



선지자와 만난 후 복음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경향을 버렸다

넬레소니 마이클레이

호주의 한 청년 성인이 넬슨 회장과의 만남에서 얻은 통찰을 이야기한다.



나를 환영해 주는 교회의 품 안으로 돌아오다

레이철 월슨

뉴질랜드의 젊은 개종자 자매가 자신이 교회로 돌아오는 데 무엇이 가장 큰 변화를 이끌어 내었는지 이야기한다.



내성적인 사람이 일요일에 살아남는 법

애스펜 스탠더

남들보다 성격이 비교적 더 내성적인 사람은 교회에 가서 외로움을 느낄 수 있다. 이 청년 성인은 그것을 성공적으로 극복한 자신의 경험을 들려준다.



선지자가 하나님께 부름받고 인도된다는 것을 알게 된 방법

안 바들리 루이

아이티의 한 젊은 회원이 사도와의 만남이 살아 있는 선지자에 대한 자신의 간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야기한다.

2020년 3월호 제57권, 제3호
 리아호나 16718 320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한국어판 잡지
제일회장단: 러셀 엠 넬슨, 델린 에이치 옥스, 헨리 비 아이어링
십이사도 정원: 엠 러셀 벨라드, 제프리 알 홀런드, 데이브 에프 우호트도르프,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쿠엔틴 엘 쿡,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날 엘 앤더슨, 로널드 에이 래스번드, 게리 이 스티븐슨, 데일 지 랜던, 게릿 더블유 쿡, 올리세스 소아레스
편집자: 랜디 디 핑크
고문: 배키 크레이븐, 쉐런 유뱅크, 크리스티나 비 프랑코, 윌터 에프 곤잘레스, 래리 에스 캐저, 아드리안 오초아, 마이클 티 링우드, 번 피 스탠필
관리 책임자: 리처드 아이 히튼
교회 잡지 책임자: 앨런 알 로이보그
비즈니스 관리자: 가르 캐넌
관리 편집인: 애덤 시 울슨
관리 부편집인: 라이언 카
출판 보조: 카밀라 카스트리온
기사 작성 및 편집 팀: 데이비드 덕슨, 데이비드 에이 에드워즈, 매튜 디 플리튼, 게릿 에이치 가르, 존 라이언 쟈슨, 에런

존스턴, 살렛 라카발, 마이클 알 모리스, 에릭 비 머독, 조슈아 제이 퍼기, 잰 핀보로우, 리처드 엠 롭나, 민디 셸루, 로리 폴러 소사, 차젤 위틀레이, 머리아 워디슨
편집 인턴: 메건 요스트
미술 책임자: 태드 알 피터슨
디자인: 저넷 앤드루스, 페이 피 앤드러스, 맨디 벤틀리, 시 김볼 보트, 토머스 차일드, 조슈아 데니스, 데이비드 그린, 콜린 핑클리, 에릭 피 존슨, 수전 로프그렌, 스콧 엠 루이, 알라니 레기어, 마크 더블유 로빈슨, 케이 니콜 위큰호스트
디자인 인턴: 겐시 린포드
지적 재산 코디네이터: 콜레트 네베카 오운
제작 관리자: 제인 앤 피터스
제작팀: 아이라 클렌 아데어, 줄리 버넷, 토머스 지 크로닌, 브라이언 더블유 지기, 지니 제이 낄슨, 머리아 엠 스미스
사건 인쇄: 조슈아 데니스
인쇄 책임자: 스티븐 티 루이스
배부 책임자: 넬슨 곤잘레스
우편 주소: Liahona, Fl. 23, 50 E. North Temple St., Salt Lake City, UT 84150-0023, USA.
통권: 제648호, 제57권, 제3호
등록: 1967년 10월 4일, 라-3166

발행일: 2020년 3월 1일(월간지)
발행인: 박경렬
편집 및 번역 책임자: 안덕현
발행소: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서울특별시 중구로 자하문로 152
인쇄인: 한국학술정보(주) 채중준
리아호나 신청 및 문의 홈페이지: HTTP://LIAHONA.KR에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전화: 리아호나 담당자에게 연락해 주십시오.(전화 080-238-8000)
구독료: 1년 구독료는 7,000원, 권당 가격은 700원입니다.(해외 구독은 개별 문의 바랍니다.) 아래 계좌로 입금해 주십시오.
예금주: (재)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신한은행 100-001-389810
 리아호나("나침반" 혹은 "지시기"를 뜻하는 문명경 용어는 한국어 외에 다음 언어로 출판됨, 그리스어, 네덜란드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독일어, 라트비아어, 러시아어, 루마니아어, 리투아니아어, 마살어, 말라가시어, 몽골어, 베트남어, 불가리아어, 비슬라마어, 사모아어, 세투어, 스와힐리어, 스웨덴어, 스페인어, 슬로베니아어, 아르메니아어, 아이슬란드어, 알바니아어, 에스토니아어, 영어, 우르두어, 우크라이나어,

이탈리아어,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중국어, 중국어(간체자), 체코어, 캄보디아어, 크로아티아어, 키리바티어, 타갈로그어, 타히티어, 태국어, 통가어, 포르투갈어, 폴란드어, 프랑스어, 피지어, 핀란드어, 헝가리어. (발행 횟수는 언어에 따라 다름)
 © 2019 Intellectual Reserve, Inc. 판권 소유. Printed in Korea.
저작권 정보: 달리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리아호나에 실린 자료는 교회 및 가정에서 (교회 부름을 포함하여)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복사할 수 있습니다. 이 권리는 언제든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시각 자료는 복사 제한 문구가 있는 경우 복사를 금합니다. 판권에 관한 문의 사항은 다음 주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50 E. North Temple St., FL 13, Salt Lake City, UT 84150, USA; email: cor-intellectualproperty@ChurchofJesusChrist.org.
For Readers in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December 2019 Vol. 43 No. 12. LIAHONA (USPS 311-480) English (ISSN 1080-9554) is published monthly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 North Temple St., Salt Lake City, UT 84150. USA subscription price is \$10.00 per year; Canada, \$12.00 plus applicable taxes. Periodicals Postage Paid at Salt Lake City, Utah. Six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old and new address must be included. Send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at address below. Subscription help line: 1-800-537-5971. Credit card orders (American Express, Discover, MasterCard, Visa) may be taken by phone or at store.lds.org. (Canada Post Information: Publication Agreement #40017431)
POSTMASTER: Send all UAA to CFS (see DMM 507.1.5.2) NONPOSTAL AND MILITARY FACILITIES: Send address changes to Distribution Services, Church Magazines, P.O. Box 26368, Salt Lake City, UT 84126-0368, USA.

추가 정보

복음 자료실 앱과 liahona.ChurchofJesusChrist.org 에서 여러분은

- 최신호 리아호나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전용 기사를 찾을 수 있습니다.
- 과월호 기사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 여러분의 이야기와 피드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구독 신청을 하거나 구독권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한국어 앱에는 해당되지 않음)
- 디지털 도구로 학습을 향상할 수 있습니다.
- 마음에 와닿는 기사와 동영상상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 기사를 내려받거나 출력할 수 있습니다.
- 마음에 와닿는 기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문의

질문과 피드백이 있다면 liahona@ChurchofJesusChrist.org로 보내 주십시오.

여러분의 이야기를 liahona.ChurchofJesusChrist.org나 다음 주소로 보내 주십시오.

Liahona, floor 23
 50 E.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 84150-0023, USA



교회에 속하는 것은 마치 ...

첫

번째 시현
2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이번 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 속하는 것에서 오는 축복을 음미해 본다. 교회 지도자들은 교회에 속하는 것을 다음 세 가지 방식으로 표현했다.



제왕얼룩나비가 되는 것

“제왕얼룩나비들처럼, 우리도 하늘에 계신 부모님과 재회하게 될 하늘의 본향으로 돌아가는 여정에 있습니다. 이 나비들처럼, 우리도 삶의 길을 찾아 ... [가]도록 하는 신성한 성품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우리의 마음을 함께 맺는다면, 주님께서는 ...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아름다운 만화경과 같이 만드실 것입니다.”

레이나 아이 아부르토 자매,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단 제2보좌, “마음을 같이하여”, 『리아호나』, 2018년 5월호, 78쪽.



다른 사람에게 구명 밧줄이 되는 것

“우리는 성약을 지킬 때 같은 문화나 사회에 속한 사람들과 차이가 생기기도 하지만, 남다른 방식으로 해결하고 접근하며 적용할 영감을 얻게 됩니다. 항상 세상에 들어맞는 사람이 될 수는 없겠지만, 긍정적인 면에서 우리가 가진 차이점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구명 밧줄이 될 것입니다.”

셰런 유벵크,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단 제1보좌, “너희 빛을 밝히라”, 『리아호나』, 2017년 11월호, 8쪽.

합창단에 속한 것

“하나님의 합창단에서는 거룩한 계획에 따라 모두가 같은 목소리를 지니지는 않[습니다]. 음악을 다채롭게 만들기 위해서는 소프라노, 알토, 바리톤, 베이스 등 다양한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 무엇보다, 합창단에서의 자신의 역할을 버리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은 다른 사람으로는 대체할 수 없는 유일무이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속한 이 위대한 필멸의 합창단은 사회나 교회에서 소외감을 느끼고 떠나는 이들을 포함해서 한 사람이라도 합창단을 떠나면 다른 단원들까지도 모두 소리가 줄어들니다.”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 심이사도 정원회, “입으로 부르는 노래, 마음에서 울리는 노래”, 『리아호나』, 2017년 5월호, 49쪽, 50쪽, 번역 수정.





울리세스와 에밀리아 마이오

포르투갈 포르투



에밀리아 마이오의 여동생인 키스토디아는 심각한 장애를 안고 태어났다. 키스토디아는 15년 전부터 에밀리아와 그녀의 남편인 울리세스와 함께 살고 있다. 가족으로서 그들은 식구들을 위해 이타적으로 봉사하는 것이 기쁨을 얻는 훌륭한 원칙임을 배웠다.

레슬리 닐슨, 사진작가

에밀리아:

물론 처음에는 힘이 들었다. 나는 동생을 돌보기 위해 직장을 그만둬야 했다. 하지만 그것은 축복이었다. 울리세스와 결혼했을 때, 우리는 자녀를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키스토디아는 우리가 돌보도록 하나님께서 보내 주신 자녀와도 같다. 동생은 여러 방면으로 자녀가 없는 데서 느끼는 공허함을 채워 준다. 그녀는 사랑이 많고 배려심이 많다. 그녀는 웃는 것과 교회에 가는 것을 좋아한다. 그녀는 기쁨 그 자체이다.

울리세스:

가족을 위해 봉사할 때면 나는 늘 영적으로 고양되었다. 비록 부부로서 둘만의 시간은 많이 보내지 못하지만, 우리는 서로 영적으로 가까워졌다. 우리는 가족으로서 더욱 가까워졌다. 이 모든 시간 동안 우리는 우리를 돕는 주님의 손길을 보았다. 그분은 우리에게 기적을 잇따라 보여 주셨다. 우리는 참으로 축복받았다.

더 알아보기

더 많은 사진을 비롯해 울리세스와 에밀리아의 신앙의 여정에 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복음 자료실이나 ChurchofJesusChrist.org/go/3206에서 이 기사의 온라인 버전을 참조한다.

성역의 원리

성전 봉사를 통해 성역을 행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성전의 축복을 누리도록 도울 때 우리는 성역을 행하고 있는 것이다.

성전 참석은 노력을 기울일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다. 러셀 엠 넬슨 회장은 다음과 같이 가르쳤다. “성전은 우리와 우리 가족의 구원과 승영에 필수적입니다[.]”

... 우리 각자는 오직 주님의 집에서만 주어지는 지속적인 영적인 힘과 가르침이 필요합니다.”¹

성전에 참석하려면 영적인 준비와 더불어 우리의 시간과 책임과 자원을 잘 활용해야 한다. 우리의 형제 자매가 성전에 가는 데 방해가 되는 장애물이 무엇인지 알아내어 해결책을 찾도록 돕는 것도 성역에 해당하는 일이다.

성전은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축복이다

선교 사업을 마치고 최근에 귀환한 메그는 하와이 코나 성전 문을 향해 걸어가던 중 바깥 벤치에 홀로 앉은 한 젊은 여성을 보게 되었다. 메그는 그 젊은 여성에게 말을 걸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는 알지

못했다. 그래서 메그는 그 젊은 여성의 발목에 있는 문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물었다. 그렇게 대화가 시작되었고, 라니라는 그 젊은 여성은 메그에게 자기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라니는 메그에게 교회에 다시 온전히 참여하기 위한 자신의 노력과 자기를 도와주는 훌륭한 회원들, 언젠가 자신의 어린 딸과 인봉되고 싶은 소망을 이야기했다.

메그는 라니에게 함께 성전 대기실에 들어가 앉자고 권했다. 현재 상황에서는 성전 대기실까지만 들어갈 수 있지만, 그렇게 해서 적어도 성전 문턱은 넘어 볼 수 있을 것이었다. 라니는 그러겠다고 했고, 그들은 함께 정문으로 들어갔다. 한 성전 봉사자가 그들을 구주의 그림 아래에 있는 벤치로 안내했다.

함께 자리에 앉자, 라니는 "사실 오늘 정말 성전에 들어오고 싶었는데, 용기 내기가 쉽지 않았어요."라고 속삭였다. 영의 속삭임을 따랐던 덕분에 메그는 라니의 소리없는 기도가 응답되도록 도울 수 있었다.



여러분의 성역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성역을 배운 경험이나 성역을 받았던 경험을 보내 주십시오.
liahona.ChurchofJesusChrist.org에서 “기사나 피드백 제출”을
 클릭하십시오.

성전 추천서가 없는 이들을 돕기 위한 아이디어

아직 추천서를 받을 자격을 갖추지 못한 이들도 성전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

- 성전 사업을 통해 여러분이 어떠한 축복을 주님께 받았는지 여러분이 느끼는 바를 이야기해 준다.
- 사람들을 성전 일반 공개나 방문자 센터에 초대한다. 다가오는 성전 일반 공개 일정을 ChurchofJesusChrist.org에서 찾아본다.



GETTY IMAGES에서 가져온 배경 사진: 은두리스 테쿠시칼피, 성전, 멕시코 티후아나 성전. 이탤리아 로마 성전의 방문자 센터 사진



QR코드를 스캔하면 베드나 장로와 래스번드 장로가
 이탈리아 로마 성전을 소개하는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다.





사람들이 더 쉽게 성전에 참여하게 한다

성전 추천서를 소지한 회원들에게도 성전 참여는 어려운 일일 수 있다. 장거리를 여행해야 하는 이들도 있고, 어린 자녀나 나이 든 가족을 돌보아야 하는 이들도 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협력할 수 있다.

리올라 찬들러는 병든 남편과 네 명의 자녀를 돌보는 일이 너무도 버겁게 느껴졌다. 그래서 매주 화요일마다 시간을 내어 근처에 있는 성전에 참석하기로 마음먹었다. 그것은 리올라의 삶에서 평화와 힘의 원천이 되었다.

어느 날, 그녀는 와드에 있는 연로한 자매 몇 명이 성전 참석을 간절히 원하지만 교통편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리올라는 그들에게 교통편을 제공하겠다고 제안했다. 그 후로 40년 동안 그녀는 혼자서 성전에 간 일이 거의 없었다.²

리올라는 축복을 받았으며,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성전에 데려다 주겠다는 제안을 함으로써 그들을 축복했다.

사람들이 성전에 갈 수 있도록 돕는 방법에 대한 아이디어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성전에 더 자주 가도록 도울 수 있을까? 여러분은 이 아이디어들이 자신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 함께 간다. 사람들에게 교통편을 제공하거나 주선하겠다고 한다. 그것이 누군가에게 성전에 참석할 용기를 주는 일이 될 수도 있다.
- 특히 의식을 받을 준비가 된 가족 이름이 많이 있을 때, 가족이나 와드 회원들에게 여러분의 조상을 위한 의식을 도와 달라고 부탁한다.
- 자녀가 있는 부모들이 성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아이들을 돌봐 주겠다고 한다. 또는 서로가 교대로 아이들을 보도록 주선한다. (아이디어가 더 필요하다면, “성전에 더욱 자주 갈 수 있는 여섯 가지 방법”, 『리아호나』, 2018년 1월호를 읽는다.)

이 QR 코드를 스캔하면 “성전에 더욱 자주 갈 수 있는 여섯 가지 방법”을 읽을 수 있다.



성전이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스리랑카 콜롬보에 사는 찬드라스 “로산”과 세론 아엔토니는 성전에서 인봉을 받기로 결심했다. 그들의 친구 앤과 아엔톤 쿠마라사미는 그 결심을 자기 일처럼 기뻐했다. 그러나 그들은 필리핀 마닐라 성전까지 가기가 쉽지 않고 경비도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로산과 세론은 자신들의 형편에 맞는 비행기를 타기 위해 돈을 모았고 항공편도 몇 달 전에 미리 예약해 두었다. 마침내 그날이 왔다. 그러나 비행기를 환승하기 위해 말레이시아에서 체류하는 동안 그들은 필리핀으로 계속 가기 위해서는 비자를 얻든지 다른 비행기를 타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비자를 얻을 수도 없었고, 다른 비행기 표를 살 여력도 없었다. 하지만 인봉도 받지 않고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니 견딜 수가 없었다.

달리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던 로산은 아엔톤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엔톤과 앤은 어떻게든 도움을 주고 싶었다. 그들은 스리랑카에서 성전 인봉을 받은 몇 안 되는 부부였고,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고 있었다. 그렇지만 그들은 최근에 도움이 필요한 가족을 돕느라 모아 놓은 돈을 써 버려서, 로산과 세론에게 비행기 표를 새로 사 줄 만한 형편이 못 되었다.

스리랑카에서는 신랑이 신부에게 금 목걸이를 사 주어서 남편이 죽으면 얼마간의 돈을 칠 수 있게 하는 것이 관례이다. 앤은 새 비행기 표를 사는 데 보태도록 자신의 목걸이를 팔기로 했다. 그녀의 관대한 선물 덕분에 로산과 세론은 약속 시간에 맞추어 마닐라 성전에 도착할 수 있었다.

앤은 이렇게 말했다. “저는 성전 인봉의 가치를 알고 있어요. 세론과 로산이 지부에 큰 힘이 되리라는 걸 알고 있었지요. 그래서 그들이 이 기회를 놓치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³



성전에 갈 수 없는 이들을 돕기 위한 아이디어

여러분은 거리나 비용 때문에 성전에 자주 또는 전혀 갈 수 없는 이들에게 성역을 행하라는 부름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런 상황에서도 여러분은 그들이 성전 축복을 이해하도록 도움 방법을 찾을 수 있다.

- 성전 준비반이나 가족 역사반에서 가르치거나 함께 참석한다.
- 집에 걸어 놓을 성전 사진을 준다.
- 성전에 참석한 경험이 있다면, 그 경험에 대한 느낌과 성전 의식에 관한 간증을 전한다.
- 그들이 이미 맺은 성약에 대해, 그리고 그것을 지킬 방법에 관해 더 배우도록 돕는다. 2012년 7월호 『리아호나』에 나오는 “하나님과 맺은 우리의 성약 이해하기: 우리의 가장 중요한 약속을 살펴봅시다”라는 기사를 활용하는 것도 고려해 본다.



이 QR 코드를 스캔하면 “하나님과 맺은 우리의 성약 이해하기”를 읽을 수 있다.



주

1. 러셀 엠 넬슨, “모범적인 후기 성도가 되십시오”, 『리아호나』, 2018년 11월호, 114쪽.
2. See LaRene Gaunt, “Finding Joy in Temple Service,” *Ensign*, Oct. 1994, 8.
3. 앤과 아엔톤은 나중에 교회의 성전 참여자 일반 지원 기금을 환급받아 목걸이를 되찾을 수 있었다. 이 기금은 성전에 갈 여력이 달린 교회 회원에게 주는 일회성 재정 지원이다.





주님께서는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
당신의 교회를 이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조직에는 주님이 선택하신 지도자들이 있어야 하며, 이들 지도자들은 주님의 뜻을 그분의 백성에게 선포할 권능과 권세가 있어야 합니다.

주후 30년 예수 그리스도와 십이사도

통해 그 일을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몸”(고린도전서 12:27)이라고 부른 개별 회원들은 오직 조직을 통해서만 창조의 목적인 영적 성장을 달성할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능력을 갖추고 다양한 노력을 하는 조직만이 주님의 사업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일을 완수할 수 있습니다.

믿는 자들의 조직을 통해서만 성취할 수 있는 일에는 가난한 사람을 돕고, 온 세상에 복음을 선포하며, 성전을 짓고 유지하기 위한 주요한 노력들이 있습니다. 조셉 스미스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모으시는 목적은 “주님께 집을 건축하여 그분께서 … 그 집의 의식과 그분 왕국의 영광을 밝히시고, 백성들에게 구원의 방법을 가르치실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⁴

또한 “하나가 되라. 만일 너희가 하나가 되지 아니하면, 너희는 나의 것이 아니니라”라는(교리와 성약 38:27) 주님의 계명을 성취하기 위해서도 조직은 필요합니다. 제일회장단의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은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그것을 구하고 또 받을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 모이라고 권고하시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⁵

믿는 자들 개개인 또한 종교 조직을 통해 종교를 체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이런 방법으로만 우리는 죄와 잘못에 대해 권위 있는 질책이나 징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징계는 우리의 영적 성장에 필수적입니다.(교리와 성약 136:31; 101:4~5 참조;

또한 모사이아서 23:21~22 참조)

닐 에이 맥스웰(1926~2004) 장로는 종교적이거나 영적인 사람들을 조직하는 또 다른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그는 “개인의 들쭉날쭉한 선함으로는 악에 대항하기에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⁶

회복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선지자와 사도들이 관리한다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조직에는 주님의 선택을 받고, 그분의 뜻을 그분의 백성에게 선포할 권능과 권세를 받은 지도자들이 있어야만 합니다.

구주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요한복음 15:16) 성경에는 누가 선지자와 사도를 선택하는지가 분명하게 나옵니다. 구약전서에서는 모세와 사무엘의 부름에서 분명히 볼 수 있으며, 신약전서에서는 십이사도와 사도 바울의 부름에서 볼 수 있습니다.(출애굽기 3장; 사무엘상 3장; 마가복음 3장; 사도행전 9장 참조) 이 지도자들은 자원하지 않았으며, 신자들이 선출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또한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신권 권세를 지녀야 함을 보여 주며, 이 권세는 그 권세를 소유한 사람에 의해 부여됩니다. 아론과 십이사도, 칠십인의 부름과 권세의 부여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된 묘사들이 이 원리를 잘 보여 줍니다.(출애굽기 28:1~4; 마가복음 3:14~15; 누가복음 10:1, 17 참조) 신권 권세는 봉사하려는 소망이나 경전 읽기를 통해 오지 않았습니다. 신권 권세를 부여하는 성임은 교회의 머리된 자들을 통해 주어지며, 이 사실은 공식적으로



1835년 조셉 스미스와 십이사도

알려집니다.(교리와 성약 42:11 참조)

구약전서에서 영적 지도자들은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세 가지 역할로 묘사됩니다. 몇몇 선지자는 아브라함처럼 후손을 위해 예언하는 일을 수행하는 거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처럼 어떤 선지자들은 제사장으로서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자신의 권능을 행사했습니다. 대부분은 사무엘과 이사야처럼 족장의 지위나 정치적 지위와 상관없이 선지자로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물문경에서는 리하이(족장), 베냐민 왕(정치 지도자), 엘마 이세(대판사직을 내려놓은 후)의 예를 통해 선지자의 동일한 세 지위를 볼 수 있습니다.(니파이전서 1~2장; 모사이야서 1~6장; 엘마서 4~5장 참조)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앞서 있었던 모든 선지자가 백성에게 회개를 외쳤고, 무엇보다도 그들이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했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⁷

사도 직분은 신약전서에서 처음으로 나옵니다. 구주께서 사도를 부르셨을 때 그분은 복음을 선포하고 침례를 주고 사람들을 치유하기 위해 그들을 조직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으며],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잇돌이 되셨”다고 기록했습니다.(에베소서 2:20) 예수님은 또한 칠십인을 불러 성역을 베풀도록 보내셨으며(누가복음 10: 1, 17 참조), 목사나 교사처럼 다른 직분의 부르기도 승인하셨습니다.(에베소서 4:11 참조)

예수님이 세우셨던 교회에서 사도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일은 신권의 열쇠를 지니는 것이었습니다. 구주께서 사도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약속하셨을 때, 그분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오늘날 러셀 엠 넬슨과 십이사도

매[이는]” 권능이라고 이 열쇠를 묘사하셨습니다.(마태복음 16:19) 다시 말해, 이 열쇠를 통해 지상에서 승인된 신권 권세의 행위는 하늘에서도 그 효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신권의 열쇠를 지닌 사도들은 지상에서 하나님의 신권 활동과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감리하고 지도할 권리와 책임이 있습니다.⁸ 여기에는 복음의 필수적인 의식을 집행하고 감독하는 일이 포함됩니다.

선지자와 사도들은 그 책임의 일부로, 복음 진리를 가르치고 “온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의 특별한 증인”으로서 간증해야 하는 선지자로서의 의무와 은사가 있습니다.(교리와 성약 107:23) 그들은 진리와 오류를 분별하고 권위 있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라고 외칩니다. 제1회회장단 제1보좌였던 제이 르우벤 클라크(1871~1961) 회장님은 사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그분의 백성에게 선포할 권리와 권능과 권세가 있으며, 이는 교회 회장의 전반적인 권능과 권세의 휘하에 있”다고 하셨습니다.⁹

아버지와 아들의 종으로서, 선지자와 사도들은 성신이 지시한 대로 가르치고 권고하며 진리를 말하고 그분의 모든 자녀를 위한 궁극의 목표인 영생, 즉 “하나님의 모든 은사 가운데서 가장 큰 것”을(교리와 성약 14:7) 포함하여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는 길을 모든 사람이 따르도록 권고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바램이 없습니다. 그들의 음성엔 신뢰할 수 있습니다.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 대리인인 엠 러셀 벨라드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시도 쉬지 않고 하루 24시간 동안 끊임없이 텔레비전과 라디오 방송 진행자들이 서로 상충하는 많은 견해를 쏟아 내며, 광고주들은 돈에서 투표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여러분이 언제나 신뢰할 수 있는 한 가지 분명하고 오염되지 않고 편견이 없는 음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살아 계신 선지자와 사도들의 음성입니다.

여러분에게 얻어 내고자 경쟁하는 오늘날의 세상에서, 여러분이 언제나 신뢰할 수 있는 한 가지 분명하고 오염되지 않고 편견이 없는 음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살아 계신 선지자와 사도들의 음성입니다. 그들의 동기는 오직 [우리] 영혼의 영원한 복리(니파이후서 2:30)입니다.”¹⁰

선지자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것은 축복이자 큰 책임이 따르는 일입니다. 그것이 축복인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려는 것에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에 따르는 책임은 주님의 가르침을 받을 때 그 가르침을 듣고 거기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일부 믿는 자들은 이 책임을 다하지 못합니다. 놀랄 것도 없이, 세상의 많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선지자와 사도들에게 그분의 이름으로 말할 권세와 영감을 주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더 많은 이들은 선지자와 사도들도 받아들이지 않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존재나 절대적인 옳고 그름이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다행히도 많은 사람이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믿고 따릅니다. 그들은 약속된 축복을 받습니다. 러셀 엠 넬슨 회장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선지자를 통해 당신의 자녀를 가르치는 하나님의 오랜 방식은 그분이 각 선지자와 선지자의 권고가 필요한 사람들을 축복하시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 줍니다.”¹¹

선지자와 사도들은 평의회를 통해 일한다

주님께서는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평의회를 통해 일하게 하심으로써 그분의 교회를 이끄십니다. 여기에는 많은 예가 있습니다.

주님은 한 선지자를 불러 새로운 경륜의 시대를 여십니다. 그런 다음, 그 새로운 회복이 성장하고 성숙해지면 선지자와 사도들이 이끄는 조직을 통해 그 백성을 위한 교리와 정책을 제시하고 가르치십니다. 따라서 회복된 교회가 이 마지막 경륜의 시대에 성장하고 성숙해짐에 따라 주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업무와 가장 어려운 안건들을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평의회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계시하셨습니다.(교리와 성약

107:78~79 참조) 그곳에서 모든 결정은 “만장일치의 지지로 내려져야 [합니다.]”(교리와 성약 107:27)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결정은 “세 명의 회장으로 구성된 정원회의 결정이 고대에 그러하였던 것과 똑같은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게 될 것입니다.]”(교리와 성약 107:29)

이 모두는 선지자와 사도들의 평의회가 그분의 교회를 다스려야 한다는 주님의 지시를 보여 줍니다. 이것은 주님의 교회에서 필수적인 단합을 보호하고 장려합니다.

조셉 에프 스미스(1838~1918) 회장님은 교회 회장으로 지지받았던 연차 대회에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주님께서는 이 교회의 대신권과 또 교회 전체를 관리하는 세 명의 대제사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계시하여 주셨습니다.”¹²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서 제일회장단의 모든 권세와 권능을 한 사람이 행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선언함으로써 회장단에서 세 명의 대제사가 있는 중요성을 확인해 주셨습니다.¹³ 그분은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주님은 결코 한 사람이 모든 권능을 다 지니도록 의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이유로 그분은 교회에 회장, 사도, 대제사, 칠십인 [등]을 두셨습니다.”¹⁴

복수의 선지자와 사도에 대한 언급은 조셉 필딩 스미스(1876~1972) 회장님의 다음과 같은 친숙한 가르침에서도 뚜렷이 드러납니다. “우리의 마음에 분명하게 해 놓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교회 회장이나 제일회장단, 또는 한목소리가 된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가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거나 주님의 생각과 뜻에 어긋나는 권고를 세상에 내놓는 일은 없을 [거라는] 것입니다.”¹⁵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공식 교리가 되려면, 사도들과 심지어 선지자들의 개인적인 가르침도 다른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승인 과정을 통해 확증되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계시를 받았다고 보고했을 때, 사도들이 승인하는 과정에 이러한 예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11:1, 18 참조) 마찬가지로, 할례의 필요성에 대한 논쟁이 사도들에게 제기되었을 때, 베드로는 그들에게 자신이 받은 계시의 중요성을 상기시켰으며, 평의회는 이를 승인하고 교회에 확증된 서신을 보냄으로써 그 논쟁을 해결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참조)

마찬가지로, 회복된 교회는 어떤 교리가 만장일치의 법에 따라 교회 회원들에게 받아들여지기 전까지는 그것을 공식적인 교리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교리와 성약 26:2, 28:13 참조) 그 원리는 1830년에 계시되었으며 그 이후로 계속 적용되고 있습니다.¹⁶ 배도라고 불리는 시대의 교회들이 따르지 않았던 이 관행 덕분에 복음의 진리는 개인의 생각과 의견에 따라 변경되거나 영향받지 않도록 보호됩니다.

마지막으로, 개별 사도나 다른 역원에게 제기되는, 경전 혹은 지침서에 명확히 정의되지 않은 교리와 정책에 관한 질문들은 제일회장단에게 문의해야 한다는 오랜 규칙에 따라 지도자 간의 교리에 대한 본질적인 일관성이 유지됩니다. (교리와 성약 124:126 참조)¹⁷

선지자와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거한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성역을 베푸는 동안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가족으로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한 민족으로 통치하셨듯이, 우리도 한 교회로서 번영하고 보호받고 지지받고자 한다면 반드시 그분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¹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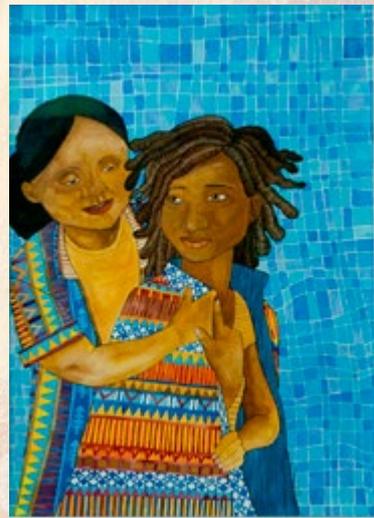
조셉은 이 기사를 통해 주님께서 여러 시대에 걸쳐 어떻게 그분의 사업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그 방식과 절차가 우리 시대에 어떻게 지속되고 있는지를 설명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가르쳤던 것처럼, “모든 선지자”가 그리스도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사도행전 10:43) 우리 시대에 주님께서 인간에게 영생을 가져다주는 당신의 사업을 그분의 이름으로 행하도록 승인받은 선지자 및 사도들을 통해 계속해서 이루고 계십니다. ■

주

1. 「지침서 제2권: 교회 관리」(2010), 2.2.
2. *Teachings of Gordon B. Hinckley*(1997), 118.
3.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교회가 필요한 이유”, 「리아호나」, 2015년 11월호, 108쪽(이 말씀은 이 기사의 처음 부분의 귀중한 출처이다); 또한 데이비드 에이 에드워즈, “우리는 그리스도 교회가 필요합니다”, youth.ChurchofJesusChrist.org 참조.
4.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2007), 416쪽, 번역 수정.
5. 헨리 비 아이어링, “우리 마음을 하나로 결합하여”, 「리아호나」, 2008년 11월호, 69쪽.
6. 닐 에이 맥스웰, “왜 지금 할 수 없습니까?”, 「성도의 빛」, 1975년 4월호, 41쪽.
7. 경전 안내서, “선지자” 참조.
8. 「지침서 제2권」, 2.2 참조.
9. 제이 르우벤 클라크 2세, 보이드 케이 패커, “십이사도”, 「성도의 빛」, 1997년 1월호, 6쪽, 번역 수정.
10. M. Russell Ballard, in “Sustaining Our Prophets and Apostles,” ChurchofJesusChrist.org; see also “Here Am I, Send Me” (Brigham Young University devotional, Mar. 13, 2001), 5, speeches.byu.edu.
11. *Teachings of Russell M. Nelson*(2018), 305.
12.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에프 스미스」(1998), 223쪽.
13. Joseph F. Smith, *Gospel Doctrine*, 5th ed. (1939), 176–77.
14. Joseph F. Smith, *Gospel Doctrine*, 177.
15. 조셉 필딩 스미스, “인도할 수 있는 영원한 열쇠와 권리”, 성도의 빛, 3월호, 18쪽, 번역 수정.
16. 교리와 성약 138편 머리말: 공식선언—2 소개; 그리고 Boyd K. Packer, *The Holy Temple*(1980), 202쪽 참조.
17. See James E. Faust, *Reach Up for the Light*(1990), 28–29; 또한 교리와 성약 68:4과 이에 대한 조셉 필딩 스미스의 설명, 「구원의 교리」, 브루스 알 맥콩키 편(1954), 1권 281~282쪽 참조.
18.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 161쪽.



후기 성도 여성
화가들이 그린
이 그림들은
여성의
영향력과 여러
가지 역할을
묘사한다.





진 비 병엄 자매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

하나님의 특별한 딸들

작고 단순한 방법으로 손을 내민다면, 우리의 가족과 다른 사람들을 특별한 방법으로 축복할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우리에게 교회가 필요한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는 동안, 병엄 자매는 우리가 주님의 구원 사업에 동참하여 우리의 신성한 잠재력을 실현하는 일에서 상호부조회와 같은 조직에 속하는 것이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를 설명한다.

제 이야기는 꽤나 평범합니다. 저는 자라면서 배우는 것을 좋아했지만, 어느 반에서도 1등을 해 본 적은 없습니다. 자랑할 만한 특별한 재주도 없습니다. 피아노를 치기는 하지만 찬송가를 더듬더듬 치는 정도일 뿐이고, 미술관 관람을 좋아하지만 제 예술적 재능은 공책에 그림을 끄적이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입을 만한 치마를 만들 수는 있어도 정장을 만드는 건 분명 제 능력 밖의 일입니다.

건강을 축복받은 덕에 공원을 가로질러 달리고 호수에서 수영하는 것을 즐기지만, 학교 운동부에 속했던 적은 없습니다. 무도회에 파트너로 같이 가자는 청을 들어 본 적도 없고, 어디에서 회장직을 맡은 적도 없습니다. 인기 있는 부류에 속한 경험도 전혀 없는데, 한번은 미모가 뛰어난 친구가 저의 이목구비를 훑어보고는 이런 말을 한 적도 있습니다. “음, 아무리 해도 예뻐질 순 없겠지만 귀엽단 소리는 들을 수 있을 것 같아.” 바뀔 말하자면, 저는 그냥 평범한 아이였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자신도 역시 평범하다거나, 어쩌면 중간도 못 간다고 생각하면서 이러한 경험에 공감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인간이라면, 특히 여성이라면 아마도 자신의 기대와 동떨어진 자기 모습에 대해 회의감과 낙담이 드는 시기를 경험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런 평범함 속에서도 저의 가치를 보셨으며, 제가 은사들과

“지메들”, 캐서린 린스: “자나가 있는 여성과 없는 여성”, 케이틀린 코넬과 “포용”, 캐슬린 피디스: “적극가들”, 게이린 헤베이라: “영역”을 바꾸는 것들을 “애니 웨이 데이더”, 기디, 캐서린 린스: “진 정성에서 그들은 도약할 것입니다”, 제네디 페이지: “유한”, 루이즈 피커, “포용의 시간”, 코니 린 리얼리



신성한 재능들을 계발하기 시작하도록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이 당신께서 계획하신 저의 자아 실현에 도움이 되리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이** 그분의 딸로서 특별해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마련해 주시리라는 것을 아셨으면 합니다. 저마다 여러 가지 독특한 재능과 능력이 있기에, 우리 각자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왕국에는 한두 사람만의 우승자를 위한 시상대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세에서 그분의 딸 **하나하나**는 해의 왕국에서 여왕이 될 놀라운 잠재력에 관해 배우고, 이를 이루기 위한 준비를 갖추고, 그렇게 될 수 있는 은사를 받았습니니다.

위대해질 수 있는 잠재력

여러분은 인생에서 무엇을 성취하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목표와 염원은 무엇입니까? 만일 여러분의 장기 목표가 해의 왕국에 들어가 우리의 하늘 부모님,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사는 것이라면, 여러분은 그 목표에 초점을 맞추으로써 지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고린도전서 2:9 참조)

여러분은 선을 행할 수 있는 놀라운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하늘 부모님의 성약의 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전세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 계획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르기를 선택했기 때문에 이 지상에 태어났다는 단순한 사실은 곧 여러분에게 위대해질 수 있는 잠재력이 내재되어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각자의 죄와 연약함, 다시 말해 부족함을 기꺼이 짊어지시고(앨마서 7:11~13 참조) 그 신성한 신뢰를 그분의 무한하신 속죄를 통해 이루셨으므로, 우리는 자신이 하나님께서 신성하게 계획하신 존재가 될 수 있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스러운 성약을 맺고 지킴으로써 그 신성한 잠재력을 이루겠다는 우리의 소망을 나타내 보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힘만으로는 그것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구주의 자비를 통해 우리는 승영에 이르는 데 요구되는 모든 부분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그 생각은 제가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으로 부름받을 당시에 저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저는 저에게 요구되는 부분을 수행할 만한 모든 지혜와 능력이 제게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지혜와 모든 권능을 가지셨”다는 지식과(모사이야서 4:9), 우리가 완벽하지 못할지라도 노력을 기울이고 최선을 다한다면 주님께서 “[우리] 오른편에도 왼편에도 [계실 것이며], … [그분]의 천사들은 [우리를] 둘러 있어 [우리를] 받쳐” 주리라는 지식에서 저는 힘과 위안을 얻습니다.(교리와 성약 84:88) 그분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진심과 기꺼이 하고자 하는 마음”뿐입니다.(교리와 성약 64:34) 그분의 계명에 순종할 때, 우리는 이생에서 요구되는 모든 일과 다음 생에서 그분의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 요구되는 모든 일을 성취할 힘을 얻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겠다는 선택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큰 영향을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 행사할 기회를 줍니다.



어느 곳에 살든, 가족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든, 은행 계좌에 얼마큼의 돈이 들어 있든, 또는 교회에 얼마나 오래 다녔든 간에 우리 각자는 선한 영향력을 강력하게 미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생활 속에서 영적인 표준을 드높이도록 영향을 미치기 위해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단순한 행위에 대한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말썽을 부리는 자녀나 어울리기 힘든 직장 동료에게 부드러운 목소리로 친절하게 말하고, 단정한 옷차림을 통해 자신의 표준을 드러내며, 어색한 마음을 뒤로하고 이웃과 친분을 쌓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집에서나 지역 사회에서 고결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여러 변경 지역에 있는 정착의 역사에 익숙하신 분들이라면, 사업으로 부를 거머쥐려는 거친 사내들이 마구잡이로 모여 많은 마을이 생겨났다는 사실을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더 많은 여성들이 도착하여 교회와 학교를 짓고 질서 정연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한 이후에야 비로소 문명화된 삶이라고 부를 만한 진정한 발전이 이루어졌습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사회는 여성들의 도덕적 힘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것만이 사회에 작용하는 긍정적인 영향력이라 말할 수는 없지만, 여성들이 제공해 온 도덕적인 토대가 사회 전반에 엄청난 유익을 안겨 주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아마도 이런 여성들의 기여는 사회 어디에나 있기에 오히려 잘 인식되지 못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 여성은 태생적으로 어떤 덕성을 갖고 태어나는데, 곧 능숙하게 신앙, 용기, 공감, 관계 개선, 문화 향상 등과 같은 속성을 심어 줄 수 있는 신성한 은사를 타고나는 것입니다.”

여성들은 큰 그림뿐만 아니라 세부적인 부분을 보는 은사를 받았는데, 이 은사는 종종 그 두 가지를 동시에 보게 해 줍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그러한 은사들을 발견하고 사용하십시오!

제임스 이 파우스트(1920~2007) 회장님께서 중후하면서도 겸허한 음성으로 이 말씀을 하시던 것이 기억납니다. “자매 여러분께서는 여러분이 지닌 영향력이 미치는 완전한 범위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봉사하는 데 중점을
두는 여러분의 노력에 대해
기뻐하십니다.



"꿈에 많은 머리", 린다 애시명탄: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 줄리 로저스: "자매들", 게이린 히베이다

자매 여러분께서는 모든 인간성을 풍요롭게 하고 있습니다. ... 각각의 여성이 독특하고 독립적인 힘을 가족과 교회에 주고 있습니다.”²

여러분에게 상호부조회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성인 여성 회원인 여러분과 저는 세계에서 가장 역사가 깊고 규모가 큰 여성 조직 중 하나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 방방곡곡의 710만 명이 넘는 자매들과 영원토록 유지될 수 있는 유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상호부조회는 그저 일요일에 한 번 하는 공과에 그치는 무언가가 아닙니다. 파우스트 회장님이 가르치신 대로, 상호부조회 안에는 거룩한 자매애가 있습니다. 상호부조회는 배움의 장소입니다. “사랑은 결코 시들지 않는다”라는 모토가 보여 주듯이, 상호부조회는 다른 사람을 돌보는 것을 그 설립 목적으로 하는 조직입니다.

“상호부조회의 회원이 되는 것은 [우리가] 하늘의 가정을 떠나 다른 가정, 다시 말해 [우리가] 같은 믿음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들과 우정을 나눌 수 있는 가정을 갖게 하여 줍니다.”³

그 과정에는 어려움과 시련도 있었습니다. 혹시 상호부조회에서 불편한 경험을 하신 적이 있다면, 우리는 모두 배우는 과정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부조회는 자매들이 자신들이 품은 질문을 던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이며 정체성과 목적을 찾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곳입니다. 그곳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성숙하게 되고 모두 함께 발전하도록 돕는 곳입니다.

여러분이 새롭게 수정된 상호부조회의 목적을 들어 보셨다면, “상호부조회는 여성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속죄에 대한 신앙을 키우고, 의식과 성약을 통해 개인과 가족 및 가정을 강화하며, 궁핍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단합하여 일하는 가운데 영생의 축복을 받도록 준비하는 일을 돕는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⁴

그렇기에, 우리는 우선 자신의 신성한 잠재력을 성취하려 노력합니다. 이를 행하기 위해 우리는 사랑과 “기쁨과 축복을 [구주의 이름으로] 나누”려고 “다 함께 일합니다.”⁵ 우리는 여러분이 이미 행하고 계신 모든 일, 즉 회원 선교 사업, 개종자가 계속 교회에 남아 있도록 돕고 저활동 회원이 교회로 돌아오도록 돕는 일, 성전 및 가족 역사 사업, 복음을 가르치는 것과 같은 구원 사업에 참여합니다.⁶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가?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 사업을 행해야 할까요? 교회에서 수줍어하는 자매의 어깨에 팔을 둘러 주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녀를 돕고, 자녀를 하루하루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기 위해 일하고, 회복된 복음이 주는 행복을 이웃과 나누며,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성전에 참석하고, 주께서 쓰시는 도구가 되겠다는 목적으로 우리의 재능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 이러한 행위와 더불어 단순하지만 의미 있는 다른 수많은 봉사의 행위는 모두 구원 사업의 일부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은 참으로 원대합니다만⁷, 우리 각자가 무언가를 행하고 그것을 꾸준히 실천한다면 그것은 수행 가능한 일입니다!

1842년에 초대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인 에머 스미스는 “우리는 특별한 일을 할 것입니다.”라고 말씀했습니다.⁸

한 예로, 미국 애리조나주에서 바쁘게 살아가던 한





다른 사람들이
생활 속에서
영적인 표준을
높이도록 영향을
미치기 위해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단순한
행위가 많이
있다.



젊은 엄마는 자신이 사는 지역에 막 도착한 난민 가족을 돕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녀는 곧 그들이 사는 텅 빈 아파트에 놓을 몇 가지 물건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가 자녀들을 데리고 물건을 전해 주기 위해 그 집을 방문했을 때에는 그 가족의 엄마에게 소지품을 넣어 다닐 손가방이 없다는 것도 알아했습니다. 그녀는 자신과 여러 친구에게 여분의 손가방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소셜 미디어에 이를 요청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 단순한 시작은 이 지역에 막 도착하는 가족들에게 필요할 물품들을 창고 가득 모으는 결과를 낳았고, 서로 다른 종교를 믿는 여성들 사이에 아름다운 유대를 형성하는 데에도 이바지했습니다.

제2대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인 엘리자 알 스노우 자매는 상호부조회의 축복에 관해 이같이 간증했습니다. “이스라엘 딸들과 어머니들 중 현재 자신의 활동 영역이 조금이라도 제한적이라고 느끼는 사람이 있다면, 이제는 자매들이 선을 행하는 모든 힘과 능력을 풍성하게 부여받음으로써 그 활동 영역이 충분히 커졌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⁹

자, 여러분은 어떤 훌륭한 일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사용 가능한 시간과 자원 내에서 무언가를 선택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힘과 수단 이상으로 더 빨리 달음질하거나 더 일하지 [마십시오.] … 다만 … 부지런하십시오.”(교리와 성약 10:4) 현재 여러분이 행하는 구원 사업이 주로 가정에서 이루어지든, 그 영향력이 전 세계에 미치든, 아니면 그 중간의 어느 지점에 있든 상관없이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봉사하고, 새롭고도 발전된 영적인 모습으로 하나님께 되돌아가겠다는 영원한 목표에 초점을 두는 여러분의 노력에 대해 기뻐하십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디이터 에프 우호트도르프 장로님이 간결하게 표현하신 것처럼 “우리의 목표는 승영이며, 제자 됨은 우리의 여정입니다.”¹⁰

우리가 제자 됨이라는 이 여정에서 앞으로 나아가는 동안, 우리 각자가 작고 단순한 방법으로 손을 내밀겠다고 결심하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가족과 다른 사람들을 특별한 방법으로 축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성하게 마련된 이 조직 안에서 맺는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를 다시 이끌어 줄 가르침을 주시고 완벽한 모범을 보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따르기를 바랍니다. ■

- 주
1.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여성의 도덕적 힘”, 『리아호나』, 2013년 11월호, 29쪽.
 2. 제임스 이 파우스트, “하나님의 딸이 된다는 것의 의미”, 『리아호나』, 2000년 1월호, 123쪽.
 3. 제임스 이 파우스트, “하나님의 딸이 된다는 것의 의미”, 121쪽 참조.
 4. 『지침서 제2권: 교회 관리』(2018), 9.1.1.
 5. “오 시온의 자매여”, 『찬송가』, 198장.
 6. 『지침서 제2권』, 5.1 참조.
 7. “오 시온의 자매여”, 『찬송가』, 198장 참조.
 8. 에머 스미스, 『내 왕국에 속한 딸들: 상호부조회의 역사와 업적』(2011), 14쪽.
 9. 엘리자 알 스노우, 『내 왕국에 속한 딸들』, 44쪽.
 10. 디이터 에프 우호트도르프, “복음은 놀랍도록 아름답습니다!”, 『리아호나』, 2015년 11월호, 23쪽.

어머니의 신앙, 케이트 리, 대저장출판사의 허가를 받아 사용함; *나의 신앙*, 파니 포비 외안다; *모든 것에 균형이*, 에밀리 맥피



쉐런 유뱅크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단 제1보좌



주가 그의 백성을

시온 이라 불렀더라

시온을 건설하라는, 즉 한마음 한뜻이 되어 의롭게 거하며 우리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도록 노력하라는 선지자의 명을 성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편집자 주: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단의 일원이자 후기 성도 자선회의 책임자인 유뱅크 자매가 우리가 지역 사회와 우리 마음속의 빈곤을 근절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때 교회의 목적과 조직이 어떻게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자신의 고유한 관점을 피력한다.

저는 교회 인도주의 센터를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복도에 걸린 조셉 스미스의 이 말씀을 소리 내어 읽어 보도록 권하곤 합니다. “[교회 회원은] 이 교회에서든 다른 교회에서든, 혹은 교회가 아닌 어디에서든 자신이 만나게 되는 굶주린 자를 먹이고, 헐벗은 자를 입히며, 과부와 고아의 눈물을 닦아 주고, 고통받는 자를 위로해 주어야 합니다.”

이 말씀은 교회가 큰 부채를 안고 있었고, 지도자들은 새로운 나라로 온 개종자들을 정착시켜야 했으며, 나부 성전이 아직 건설 중이었던 시기에 주어진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교회에서 선지자 조셉은 다른 문제를 제쳐두고서 가난한 이들을 부양하는 문제를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조셉은 그토록 심각한 상황에서도 주님과 성약을 맺은 백성들이 언제나 중점적으로 집중해야 하는 것은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돌보는 일임을 이해했습니다.



시온에 대한 비전

1830년 4월에 교회를 조직한 후, 조셉이 처음으로 한 일 중 하나는 영감을 받아 성경을 번역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저는 종종 그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교회 역사상 이렇게 중대한 시점에 조셉은 왜 창세기를 다시 번역하는 일에 몰두해야 했을까요? 창세기는 충분히 잘 알려진 부분이었는데도 말입니다. 그러나 그 번역 작업의 일부는 나중에 값진 진주의 모세서가 되었습니다. 모세서는 현대 교회에서 매우 중요한 교리의 단초가 되는 귀중한 내용이 담긴 경전입니다.

이 책에는 모세와 예녹의 경험이 나오는데, 그것은 몇 가지 면에서 조셉이 경험한 것과 놀랍도록 유사했습니다. 이 선지자들은 위대한 일을 하도록 각자 주님께 부름을 받은 이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계획에서 자신이 맡은 역할을 더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그들 각자에게 당신의 창조물들을 보여 주셨습니다.(교리와 성약 76편; 모세서 1장; 7장 참조) 그들의 중대한 사명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의 나라가 될 이스라엘을 집합시키고, 시온을 건설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하라.**

하지만 그것은 어떻게 성취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예녹의 답은 간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의롭게 거하며, 그들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었으므로 주가 그의 백성을 시온이라 불렀더라.”**(모세서 7:18; 강조체 추가)

후기에 교회가 받은 사명의 핵심은 지역 사회와 우리 마음속에서 빈곤을 근절하고, 하나가 된 시온을 설립하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올 때를 대비하여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주님의 방법으로 베품

지난 한 세기 동안 빈곤을 퇴치하기 위해 여러 정부와 단체들이 쏟아부은 비용은 미화로 수조 달러에 달합니다. 그 모든 일은 선한 의도로 진행되었으나 그중 상당수가 실패와 헛수고로 끝이 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사람들의 능력을 키우기보다는 의존하는 마음만 키워 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의 방법은 주는 자와 받는 자 모두를 발전시키고, 사람들이 스스로 선택의지를 행사하는 자가 되게 하며, **“부한 자가 낮아짐으로써”**(교리와 성약 104:16) 가난한 자를 끌어올립니다. 때로 이것은 **자립**이라는 말로 불리지만, 그 진정한 의미는 각 사람이 자기 안에 있는 성스러운 힘을 끌어냄으로써 하나님의 도움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중국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것입니다.

과거와 현재의 모범

조셉 스미스는 기쁘게 주님의 방법으로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는 일을 실천했습니다. 제임스 리치는 자기 매형과 함께 나무에서 여러 날 동안 일자리를 구하려 애썼으나 성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선지자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했습니다. 제임스는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스미스 씨, 혹시 관찮으시다면 저희에게 일자리를 주실 수 있을까요? 양식을 구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는 밝은 표정으로 우리를 본 후, 친절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디 봅시다, 무슨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도랑을 만들 수



있습니까? 저는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 일을 끝마친 후 저는 그에게 가서 일을 마쳤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와서 보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했어도 이보다 더 잘하지는 못했겠습니다. 자, 감사다.’ 그는 저희를 상점으로 데리고 가서 제일 좋은 햄이나 돼지고기를 한 덩어리 고르라고 했습니다. 저는 민망한 마음에 그가 골라 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저희 각자에게 가장 크고 질 좋은 고깃덩이와 밀가루 한 부대씩을 골라 주면서 이 정도면 충분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저희가 이 정도면 일을 더 해 드리겠다고 하자, 그는 ‘두 분이 만족하신다면 저도 만족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저희는 그의 친절에 감사를 표했고, 하나님의 선지자인 그의 친절에 기뻐하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²

오늘날에도 후히 나누는 것과 자립 사이에서 이와 똑같이 세심한 균형을 보여 주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일은 2013년 태풍 하이옌이 필리핀 중부를 강타하여 백만여 가구가 파괴되었을 때 일어났습니다. 구호 물품을 무분별하게 나누어 주기만 하면 의존심과 낭비를 낳을 수도 있으므로, 교회는 자립의 원리를 적용하여 이재민들이 재건에 필요한 기술들을 익히도록 도왔습니다. 교회는 집을 짓는 데 필요한 자재들을 구매하고, 현지 지도자들은 건축일을 가르칠 사람들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재민들은 도구와 자재를 지급받고 훈련을 받으면서 자신들이 살 집을 자기 손으로 지었습니다. 그들은 이웃들도 똑같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 과정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나중에 각자 직업 교육 수료증을 받았는데, 그것은 그들이 새로 배운 기술을 증명하고, 중요한 구직 기회에 필요한 자격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구호 물품과 실무 훈련을 결합함으로써 집만 지은 것이 아니라 역량도 길러 냈습니다. 이 일을 통해 사람들은 단순히 주거지만 복구한 것이 아니라 자신감도 회복했습니다.³

작은 기부도 중요합니다

도움을 주기 위해 반드시 부유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 청년은 조셉 스미스와 관련된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저는 조셉의 집에 있었습니다. … 몇몇 사람들도 울타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조셉이 밖으로 나와 우리 모두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곧 어떤 사람이 와서 마을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 사는 한 가난한 형제의 집에 지난 밤에 불이 났다고 했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참 안됐다고 말했습니다. 조셉은 주머니에 손을 넣어 5달러를 꺼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 형제님에 대해 5달러만큼의 동정심을 느낍니다. 여러분은 얼마만큼의 동정심을 느끼십니까?’”⁴

저는 최근에 농촌에서 온 열 살 짜리 소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아이는 얼마 안 되는 자기 돈을 들여 소아마비 예방 접종권을 구매하고 있었습니다. 소년은



소아마비에 걸린 아이들에 대한 글을 읽고서 다른 사람들이 그러한 질병으로 고통받지 않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저는 그 아이가 얼마나 많이 공부했는지, 그리고 그의 작은 기부가 얼마나 사려 깊은 것인지를 보고 놀랐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각자는 분명 나눌 것이 있으며, 기부의 참된 의미는 금전적인 가치로만 측정할 수는 없습니다.

마음을 하나로 모을 때 얻게 되는 힘

우리가 맺은 성약을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우리 각자는 한마음 한뜻이 되어 의롭게 거하며 우리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렇게 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함께 맺어질 것이고, 세상의 불평등을 줄이는 데도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성약의 백성이 노력을 한데 모은다면 훨씬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가족, 정원회, 상호부조회, 청년반, 스테이크는 그들이 속한 지역 사회의 구체적인 필요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준비할 수 있으며 이는 엄청난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교회의 인도주의 단체인 후기 성도 자선회는 세계 곳곳에서 긴급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여러 작은 노력들을 한데 모읍니다.⁵

교회 회원들은 시간, 돈, 전문 기술을 아낌없이 기부합니다. 이러한 기부는 대부분 엄청나게 대단한 것은 아닙니다. 소액의 기부금이나 몇 시간의 자원 봉사 정도입니다. 이는 말하자면 현대판 과부의 헌금에 해당합니다.(마가복음 12:41~44 참조) 이러한 기부는 작아 보일지 모르나, 과부와 농부와 열 살 짜리 소년이 자원을 모으고 나서 주님께 이를 자라나게 해 달라고 간구할 때(고린도전서 3:6 참조) 그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세상에 보여 줍니다.

우리는 교회 초기부터 지금까지 시온의 상태를 만들기 위해 많은 발전을 이루었지만, 아직도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축복하시어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찾아 그들의 짐을 털어 주고 그들의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축복하시, 회원 각자의 노력을 통합하여 영화롭게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럼으로써 구주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시온을 건설하라는, 즉 한마음 한뜻이 되어 의롭게 거하며 우리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도록 노력하라는 선지자의 명을 성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주

1.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2007), 426쪽.
2. James Leach, in "Recollections of the Prophet Joseph Smith," *Juvenile Instructor*, Mar. 1, 1892, 152–53; punctuation modernized; paragraph divisions altered.
3. See "Mormon Volunteers Building Homes for Typhoon Haiyan Victims," Feb. 21, 2014, newsroom.ChurchofJesusChrist.org.
4. Andrew J. Workman, in "Recollections of the Prophet Joseph Smith," *Juvenile Instructor*, Oct. 15, 1892, 641.
5. See latterdaysaintcharities.org

우본 와드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와드의 회원들은 교회에서도 모두 함께 모이는 일이 드물다. 어떻게 하면 모두가 모일 수 있을까?

아카넷 사프라스트

태 국에서는 많은 회원이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학교 모임, 약천후(많은 회원이 오토바이로 이동하므로), 혹은 먼 거리 때문에 교회 참석에 어려움을 겪는다. 우리 우본 와드 회원들도 그런 것을 비롯한 많은 어려움 때문에 교회 참석을 힘들어한다.

어느 일요일에 나는 골똘히 고민해 보았다. 신앙을 행사하여 더 자주 함께 예배할 때 받게 되는 축복을 인식하도록 회원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아이디어가 하나 떠올랐다. “어느 한 일요일을 정해서 모든 회원이 그날 교회에 참석하는 데 집중하게 한다면?” 만약 모두가 같은 날 참석한다면, 회원들은 와드의 힘을 실제로 보고 느낄 수 있을 것이었다.

와드의 다른 지도자들과 회원들도 아이디어가 좋다며 계획에 동참했다. 우리는 우본 스테이크 창립 기념일에 가장 가까운 일요일인 2018년 6월 17일로 날짜를 정하고 소셜미디어로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다. 우리는 행사의 이름을 이렇게 정했다. “같은 일요일에 교회로 모입니다! 성찬식 참석 200명—우본 와드는 할 수 있습니다.”

거의 와드 전체가 서로의 참석을 독려하는 데 나섰다. 모두가 다른 사람에게 행사에 참여하도록 설득하는 메시지를 계속 보냈다. 회원들은 교회로 다시 돌아오고 있는 중인 회원과 회원이 아닌 친구도 초대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오겠다고 대답했다!

우리는 이 행사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오는지 보기 위해 그냥 재미로 하는 행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우리는 이 행사를 계기로 회원들이 성찬식 참석을 우선순위에 두는 데 도움이 될 특별한 영적 경험을 하기를 바랐다. 그래서 행사를 앞둔 몇 달 동안 감독단은 성찬식, 혹은 주님께 드리는 예배의 중요성을 가볍게 만드는 그 어떤 행동도 피하도록 권고했다.

우리는 사람들이 이 행사를 기억하고, 그날 참석하려는 모두의 노력 덕분에 그곳에 머물게 될 영을 기억하도록 책갈피도 만들었다. 책갈피에는 행사 이름과 경전 구절을 적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시편 82:6) 우리는 모두가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분과 같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기를 바라며 이 구절을 골랐다.

회원들은 모두가 정해진 날에 참석할 수 있도록 오랫동안 계획했다. 마침내 그날이 왔다. 하지만 시련도 함께 왔다. 전날 밤, 폭우가 쏟아지더니 밤새도록

계속해서 비가 내렸다. 몇몇 회원들에게는 교회 모임이 열리는 시간에 중요한 학교 모임이 잡히는 장애물도 생겼다.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이런 장애물이 없어지거나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권유했다. 일요일 아침 7시쯤에 비는 그쳤다. 교회에 도착하자 학교 모임에 참석해야 한다던 가족들이 와 있었다. 그 모임은 어떻게 됐는지 문자 이런 대답이 돌아왔다. “성찬식에 먼저 와야죠.” 그 말은 나에게 주님의 성찬식이 지닌 중요성에 대한 위대한 간증으로 다가왔다.

회원들이 많은 친구와 이웃을 모임에 데리고 왔다. 한 자매는 교회에 한 번도 와 본 적이 없는 친구를 여덟 명이나 데리고 참석했다! 더 많은 사람이 도착하면서, 우리는 뒤쪽 공간까지 열어야 했다. 성찬식 참석 인원은

215명이었다! 모임 내내 나는 성신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것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성공하도록 도와주셨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이 놀라운 일요일을 보낸 후로 성찬식에 정기적으로 참석하는 사람의 수가 늘었다. 거기에는 가족과 함께 정기적으로 교회에 참석하기 시작한 세 명의 벨기세텍 신권 소유자도 있었다. 어느 가족은 그다음 달에 두 자녀가 침례와 확인을 받았다.

스테인크 지도자들은 우리 와드가 얼마나 훌륭한 경험을 했는지를 보고 그와 비슷한 행사를 열기로 결정했다. 스테이크 회원들은 스테이크 행사를 위해 모두 같은 일요일에 본인이 속한 와드에 참석하기로 했다. 이 행사는 스테이크에서도 큰 성공을 거두었다. 우리 스테이크의 한 와드는 참석수가 208명이나 되었다! 이 행사들을 통해 나와 우리 와드, 그리고 우리 스테이크가 받은 축복에 대해 정말 감사한 마음을 느낀다. 그리고 행사를 준비하고 행사에 참여하며 우리가 느낀 영에 대해서도 감사하다. ■

글쓴이는 태국 이산에 산다.



태국 회원들은 날씨, 거리, 학교 일정 때문에 교회 참석에 어려움을 겪는다. 그래서 우본 와드는 날짜를 정하고 그날 최대한 많은 사람이 참석하도록 격려했다.

“불편한 진실”

뉴욕 펜실베이니아 유적지 선교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눌 남다른 기회가 있는 곳이다. 우리는 다른 선교사들처럼 전도를 하며 복음을 가르치고 침례를 주지만, 이곳에서 일어난 성스러운 사건들에 대해 가르치는 훌륭한 임무도 함께 맡는다.

우리는 스미스 가족 농장, 물문경 출판 장소, 쿠모라 산 방문자센터, 피터와 메리 휘트머 농장에서 봉사한다. 우리는 방문자들과 함께 이 성스러운 유적지들을 둘러보고 그들이 회복을 중심으로 일어난 여러 사건과 역사에 대해 더욱 친숙해지도록 돕는다.

어느 날, 동반자와 나는 아일랜드에서 온 젊은 가족에게 스미스 가족 농장을 안내해 주었다. 그들은 개종한 지 2년밖에 안 된 가족이었다.

동반자와 나는 조셉 스미스의 가족이 1820년 봄에 살던 곳을 복원한 통나무집에

서서 어린 시절 조셉에게 일어난 중대한 사건들, 즉 조셉이 어느 교회에 가입해야 할지 알기 위해 숲으로 들어가서 기도하는 계기가 되었던 일들을 이야기했다. 우리는 이 가족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어 기도 응답해 주셨을 때 조셉이 경험했던 것들을 들려주었다. 그런 다음, 그들에게 조셉 스미스와 그의 첫번째 시현을 처음 접했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물어보았다.

나는 사람들이 으레 말하는 그런 느낌을 듣게 되리라 짐작했다. 마음속이 불타오르는 듯했다거나 너무도 강한 영을 느껴 그 이야기가 사실임을 분명히 알게 되었다 하는 등의 이야기 말이다. 그런데 그들은 그 이야기가 “불편한 진실”처럼 느껴졌다고 대답했다. 그 말을 듣고 우리는 잠시 멈칫했다. 그래서 그게 어떤 의미인지 설명을 더 부탁했다.

그들은 복음을 알기 전에는 모든 것이

좋았는데, 익숙하던 생활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게 불편하게 여겨졌다고 했다. 복음이 참되다는 영적 증거를 받았을 때, 그들은 그런 생활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걸 알았던 것이다.

우리는 그들이 들려준 흥미롭고도 진솔한 간증에 감명을 받았다. 조셉 스미스와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에 대한 확고한 간증이 있었기에, 그들은 기존의 생활방식을 바꾸는 불편을 감수하고 교회에 가입하기로 결정했다. 그들이 그렇게 한 것은 그러한 변화가 그들 가족에게 가장 훌륭한 일이 될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나는 이루 다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선교 사업을 사랑했다. 나는 내가 봉사한 유적지들이 모두 성스러운 곳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우리가 이곳에서 일어났다고 이야기하는 모든 일은 실제로 일어난 것들이었다. 그것은 기적이다. ■

테일러 크로프츠, 미국 와이오밍주

그들은 첫번째 시현을 “불편한 진실”이라고 느꼈다. 그래서 그게 어떤 의미인지 설명을 더 부탁했다.



삽화: 세릴 윌머스

다시 열네 살로 돌아가다

미국 뉴욕주 로체스터에 불일을 보러 갔을 때였다. 나는 그곳에 간 김에 약 40킬로미터만 가면 나오는 팔마이라의 교회 유적지까지 차를 몰고 잠시 다녀오기로 했다. 내가 특히 보고 싶었던 곳은 성스러운 숲이었다.

당시는 직장에서도 집에서 안되는 일이 많아 힘들 때였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마음에 두고 계시다는 사실을 뭔가 장엄한 방법으로 확인시켜 줄 나만의 성스러운 경험을 갈망했다.

이것은 쿠모라 산 방문자 센터와 뉴욕 팔마이라 성전이 세워지기 훨씬 전의 일이다. 나는 스미스 가족이 살던 집 근처에 주차를 하고 차에서 내려 성스러운 숲으로 안내하는 팸말들을 따라갔다. 나는 마음속으로 기도하며 나무 사이로 난 길을 따라 걸었다. 걸음을 옮기며 명상을 하고, 무릎을 꿇고서

기도도 드렸다. 마음은 차분해졌지만 빛기둥이나 주체할 수 없는 어떤 감정이 찾아오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걱정과 근심은 여전히 내 마음을 짓눌렀다.

다소 실망한 마음으로 나는 복원된 스미스 가족의 통나무집으로 향했다. 나는 스미스 가족이 그곳에서 일하고 경전을 읽고 기도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았다. 판자를 깬 바닥에 벽돌로 된 벽난로, 나무 탁자와 의자, 소박한 가구를 놓은 위층 방과 부엌도 보았다. 알고 싶은 것이 한가득이던 열네 살 소년, 하나님께 나아가 여쭙어 보기로 결심했던 그 아이가 살던 집이라고 생각하니 머리를 한 대 맞은 느낌이였다.

문간에 서서 그곳을 떠나려던 순간, 문득 성스러운 숲 쪽으로 눈을 돌렸다. 나는 조셉 스미스가 가까운 숲으로 가서 기도했고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을 알았다. 불현듯 조셉에 공감하는 마음이 온몸을 타고내렸다. 조셉이 기도하기 전에 받은 느낌을 고스란히 느끼고 있는 것만 같았다. 나는 지혜가 부족했지만, 하나님께 구하면 응답받을 수 있음을 알았다.(야고보서 1:4-5 참조) 십 대 시절에 내가 어떻게 신앙으로 기도했고 화평과 확신을 느꼈는지가 기억났다. 그때와 똑같은 희망과 사랑이 마음속에 차오르는 것이 느껴졌다. 다시 열네 살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이였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감사 기도를 드렸다. 나는 응답을 받았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나를 염두에 두고 계셨다.

그리고 내가 계속해서 그분을 신뢰한다면, 그분은 계속해서 응답해 주실 것이다. ■
리처드 엠 롬니, 교회 잡지



나의 신앙의 섬

칠레 해안에서 670킬로미터 떨어진 로빈슨 크루소섬에서 살던 어린 시절, 부모님은 우리 남매들에게 신앙과 끈기를 가르쳐 주셨다.

부모님이 주신 기억에 남은 가르침 중 하나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어느 일요일에 배운 것이었다. 두 분은 주님과 맺은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이 있다는 것을 아셨다. 바로 교회에 가는 것이었다. 우산들이 땅가진 탓에 우리는 겨우 외투와 장화로만 폭풍우에 맞서야 할 형편이었다. 어머니는 비닐 쓰레기봉투를 둘러쓰는 방법도 생각해 내셨다. 빗속에서 길을 걷는 건 우리뿐이었지만 전혀 부끄럽지 않았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았다.

집회소로 사용하던 건물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그날 모임에 참석할 사람이 우리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런 일요일은 자주 있었다. 아버지는 지부 회장으로 봉사하셨는데, 종종 어린이들과 상호부조회 자매 몇 명이 전부인 모임을 사회하곤 하셨다. 성찬 축복과 전달도 아버지의 몫이었다.

나는 가족과 함께 교회에 참석하던 그 시절이 그림다. 함께 찬송가를 부르고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배우던 그 추억은 지금도 소중히 남아 있다. 아직도 내 마음은 로빈슨 크루소섬에 머물러 있다. 부모님이 복음을 가르쳐 주시던 것을 비롯해 내 모든 어린 시절의 추억은 그곳에서 쌓은 것들이다.

섬에는 교회 회원이 얼마 없었기에 많은 회원이 누리는 프로그램이나 자원도 없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부모님은 우리에게 교회에 참석하고 기도하고 경전을 읽도록 가르치셨다. 나는 경전을 읽고 개인적인 계시를 받는 경험들을 하면서 힘을 얻고 인도를 받았다. 선교 사업에 대한 확신을 받은 어느 일요일이 특히 기억에 남는다.

칠레 비냐델마르에서 대학에 다닐 때, 나는 부모님이 날이 좋은 흐리든, 우박이 내리든 바람이 불든 간에 늘 나와 함께 교회로 걸어가시던 것을 기억했다. 그 기억 덕분에 나는 밖에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일요일에는 꼭 잠자리에서 일어나 준비를 하고 교회로 갔다.

내가 어린이였을 때에도, 선교사였을 때에도, 그리고 아내와 어머니가 된 지금도 내 삶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이제 나는 가정을 꾸렸고, 남편과 함께 우리 부모님이 보여 주신 충실한 모범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전해 줄 생각이다. ■

벨렌 아로스, 칠레 코킴보

비속에서 길을 걷는 건
우리뿐이었지만 전혀 부끄럽지
않았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았다.



우리가 부름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일까?

신 생아와 어린 자녀를 키우는 부모인 우리 부부는 교회 부름을 수행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그래서 남편이 청년 독신 성인 학생 와드의 감독으로 부름을 받았을 때, 우리는 무척 망설였다.

과연 우리가 이제껏 해 오던 일에 새로 추가되는 책임까지 모두 해낼 능력이 있을지 의심과 걱정이 밀려왔다. 부름을 받고 며칠 후, 남편과 나는 우리에게 셋째가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병력이 있어서 그 전에도 임신 기간들이 순탄하지 못했다. 남편이 부름을 받아들이면 앞으로 몇 달 동안 어떤 일들이 있게 될지 함께 의논해 보면서도 어떡해야 할지 갈피를 잡기가 어려웠다.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며 위안과 인도를 구하기 시작했다.

한번은 남편이 우리 상황을 스테이크 회장님께 말씀드리고 부름을 거절해야



하는 게 아닌지 고민하기도 했다. 우리가 보기엔 그게 가장 적절한 방법 같았다. 하지만 기도하고 금식하는 동안, 우리는 토마스 에스 몬슨(1927~2018) 회장의 다음 말씀을 떠올리게 되었다. “우리가 주님의 부름에 응한다면 주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봉사하도록 부름 받음”, 『성도의 빛』, 1996년 7월호, 44쪽)

이 말씀으로 우리는 위안을 얻고 걱정을

덜 수 있었다. 우리는 이 부름이 스테이크 회장님께서 온 것이 아니라는 확신을 받았다. 이 부름은 주님께서 주신 것이며, 그분은 부름이 주어질 당시 내가 임신 중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보다 먼저 알고 계셨다. 주님은 남편이 부름을 받아들이지 않은 채 자기 혼자 힘으로 해낼 것보다 더 많은 일을 우리 가족을 위해 해 주실 수 있었다.

마음에 신앙을 품고서, 남편은 부름을 수락했으며 우리는 그날그날 최선을 다했다. 세 번째 임신은 큰 기적이 되었고, 우리 아들은 건강하고 튼튼하게 세상에 나왔다. 내가 자녀들을 데리고 소속 와드에 다니는 몇 년 동안 우리는 가족은 물론이고 와드 회원들과도 더욱 가까워졌다. 남편이 성실하게 부름을 수행하는 동안, 나는 와드의 가족들에게 내 자녀와 관련된 도움을 요청하는 법을 배웠다.

남편과 나는 충실한 여러 성도들에게 감사드릴 뿐이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일과 가족, 교회 봉사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 애쓸 때 우리를 도와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가장 감사하다. ■

노마-진 리바이, 미국 하와이주



상: GETTY IMAGES

사탄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속이려 하는가?

니파이의 악마가 우리를 속이기 위해 사용하는 세 가지 전략을 경고했다.

1. 선한 것에 대해 분노하게 함 (니파이후서 28:20)

사탄은 어떤 식으로 사람들을 부추겨 선한 것에 대해 분노하게 하는가?
사탄은 사람들을 유혹하여 다음과 같은 선한 것들을 분노의 대상으로 삼게 할 것이다.

- 전통적인 결혼과 가족
- 여러분과는 다른 사람들을 비롯하여 모든 사람을 향한 친절과 동정심
- 조직된 종교 단체

사탄은 안락한 삶에 안주하여 악에 맞서 싸우는 것을 더는 신경 쓰지 않거나 영적으로 발전하려는 노력을 그만두도록 어떻게 사람들을 꺾어 내는가?

다음은 악마가 우리를 무관심하게 만들기 위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거짓말의 예이다.

- 뭘니 뭘니 해도 중요한 것은 인생을 즐기고 멋진 물건을 갖는 것이다.
- 무엇이든 어렵거나 불편한 것은 나쁜 것이 틀림없으니 피해라.
- 인생이 무난하게 흘러가는 듯 보이면 그것으로 된 것이다.

사탄은 어떻게 사람들을 꺾어서 악이 실재한다는 사실과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리라는 사실을 더는 믿지 않게 하는가?
사탄은 우리가 **악도 없고 결과도 없다고** 믿도록 이런 거짓말을 한다.

- 인생을 살고 나면 끝이다. 그러니 맘껏 즐겨라.
- 좋다 싶으면 해라.
- 주위를 둘러봐라. 나쁜 사람들은 처벌받지 않는다. 그런데 왜 그들처럼 재미있게 살지 않는 것인가?

2. 인일함과 무관심 (니파이후서 28:21)

속임수 피하기

2004년 10월 연차 대회 말씀인 "속지 마십시오"에서 속지 않는 방법에 대한 델린 에이치 옥스 회장의 조언을 살펴볼 수 있다.

3. 악마도 없고, 악도 없고, 결과도 없다 (니파이후서 28:22)

“꺾대를 지나쳐 바라”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선 지자 야곱은 유대인들이
“꺾대를 지나쳐
바라봄”으로써(야곱서 4:14)
영적으로 눈이 멀게 되었다고
가르쳤다. 꺾대를 지나쳐 바라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꺾대란 무엇인가?

“꺾대가 그리스도인데도,
[어떤 이들은] ‘꺾대를 지나쳐
바라봄’으로써(야곱서 4:14)
눈이 멀게 되었습니다.”

Elder Neal A. Maxwell (1926–2004) of
the Quorum of the Twelve Apostles,
“Jesus of Nazareth, Savior and
King,” *Ensign*, May 1976, 26.



꺾대를 지나쳐 바라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양궁에서 과녁을 맞추려면 과녁에
조준을 해야 한다. 과녁 너머를 보면
과녁을 놓치게 된다. 신약에서 죄라는
단어가 “과녁을 놓침”이라는 뜻의
그리스어 **hamartia**[하르마띠아]에서
유래한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일 것이다.
야곱서 4장 14절에 설명된 유대인의 죄는
무엇이었는가?

우리는 어떻게 과녁을 맞추는가?

“무엇보다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기르고 타인에게 정성을 쏟는 일에
집중하고, 그것에 대해 생각하며, 그렇게
하고자 노력할 때 우리는 올바른 목표를
찾아 정중양을 조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어 갈 것입니다.”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정중양을 겨누십시오”, 『리아호나』, 2017년 1월호, 5쪽.

우리는 감람나무의 비유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감람나무의 비유에서 포도원의 주인은 자신의 썩어 가는 감람나무를 발견하고는 “내가 그 [나무의] 가지를 치고, 그 돌레를 파고, 그것에 거름을 주리니”라고 말한다.(야곱서 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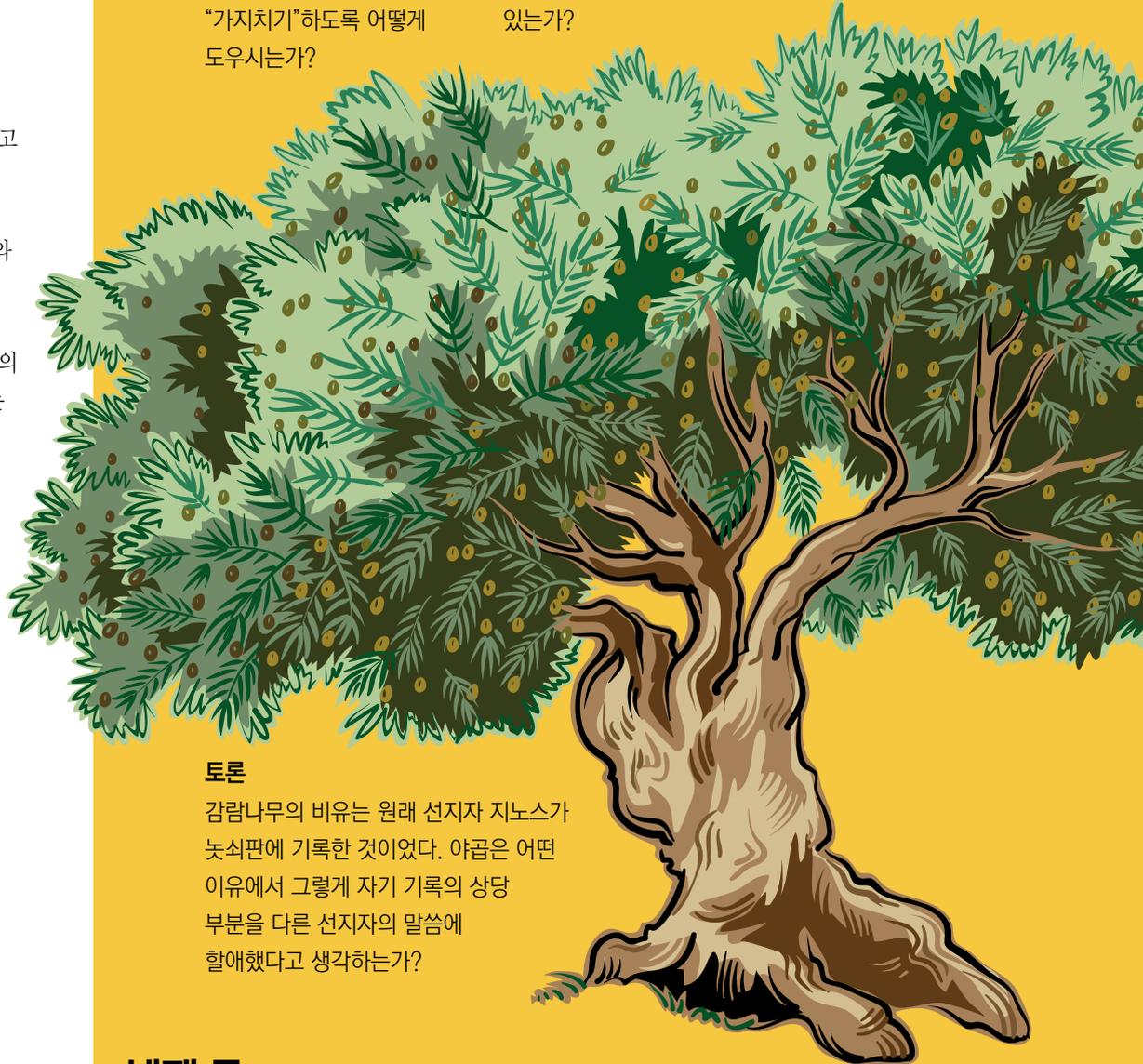
이 비유에서 주인과 그의 좋은 포도원을 여러 번 방문한다.(야곱서 5:15~18, 29~32, 37~42 참조) 그들은 매번 가지를 치고 돌레를 파고 거름을 주는 일을 반복한다.

포도원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나무와 그 가지는 그분의 백성을 상징한다. 이 비유는 나무와 과일에 관한 이야기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 이 비유는 하나님께서 당신 자녀들의 삶에 관여하신다는 사실과 구주의 사명, 그리고 온 인류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보여 주는 강력한 증거이다.

가지를 친다는 것은 나무에서 죽은 가지와 나쁜 열매를 제거하는 일을 뜻한다. 주인은 죽은 가지를 잘라 불 속에 던져 넣었다.(야곱서 5:9 참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와 약점을 가진 우리의 삶을 “가지치기”하도록 어떻게 도우시는가?

파는 것은 나무 돌레에 있는 잡초 같은 방해물을 제거하는 일을 의미한다. 그렇게 하면 나무의 성장에 방해가 되는 요소를 모두 제거할 수 있다. 우리의 영적 성장을 저해하는 방해물에는 무엇이 있는가?

거름을 주면 무기질과 다른 영양분을 공급함으로써 나무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다. 나무처럼, 우리의 영도 영양분을 필요로 한다.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영을 양육할 수 있는가?



토론
감람나무의 비유는 원래 선지자 지노스가 노트집에 기록한 것이었다. 야곱은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자기 기록의 상당 부분을 다른 선지자의 말씀에 할애했다고 생각하는가?



“모든 것을 바쳐
성약을

맺을 때, 우리는
현재의 우리 자신보다
더 나은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게릿 더블유 공
장로, “성약에 속하는 것”, 80쪽,
강조체 추가.

사랑하고 성역을
베풀어야 할 필요성

“우리는 모두 어떤 부분을
더 잘 할 수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서로에게
알려 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서로를 사랑하고 성역을
베풀어야 하며 그렇게 할 때
기꺼이 변하고자 하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칠십인 정원회의 한스 티 보움 장로,
“알고, 사랑하고, 성장하기”, 105쪽.

넬슨 회장의 권고

연차 대회 동안, 러셀 엠 넬슨 회장은 후기 성도들에게 중요한 권고를 전했다.

청소년에게 주는 권고:

- “제한 사용 성전 추천서를 받을 자격을 갖추[십시오.]”(“폐회 말씀”, 121쪽)
- “주님의 청소년 대대에 합류”하라는 그분의 권유를 기억하십시오.(“증인, 아론 신권 정원회, 청년 반”, 39쪽)

여성들에게 주는 권고:

-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알려 주시고 행하기를 원하시는 바를 여러분이 이해하고자 힘[쓰시고]”, “교리와 성약 25편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공부하고, 성신이 **여러분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시는지 찾아보[십시오.]”
- “여러분의 주의를 흐트러뜨리는 세상적인 것들에서 시선을 돌[리고]”, “자신의 삶을 주님께 바치는, 평생에 걸친 이 과정을 시작하고 계속해 나[가십시오.]”
- 예수 그리스도의 교리를 가르치고, “가정과 와드와 스테이크 평의회[에] 여러분의 고견”을 제시하십시오.
- 봉사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경전을 연구하고, 성전에서 봉사하고, 가족 역사 사업을 행하십시오. 이 모두는 여러분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 줄]” 것입니다.

- 교리와 성약 84편과 107편부터 시작하여 “신권 권능에 관한 **모든** 진리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공부하”십시오.(“영적인 보화”, 77, 79쪽 참조)

2020년 4월 연차 대회를 준비하도록 **모든 교회 회원에게 주는 권고:**

- 첫번째 시현에 관한 조셉 스미스의 기사를 다시 읽는다.
- 물몬경과 첫번째 시현 이후로 일어난 사건들이 나와 나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숙고해 본다.
- 개인 및 가족 학습을 할 때 새로운 물몬경 비디오를 함께 사용한다.
- 우리 자신만의 질문을 선정하고, 우리 자신만의 계획을 설계하며, “회복이라는 영광스러운 빛에” 몰두한다.(“폐회 말씀”, 122쪽 참조)

여기에 나오는 쪽수는 모두 2019년 11월호 『리아호나』에 해당한다.

더 깊이 알아보기

성약의 길을 걷는 일

델린 에이치 옥스 회장은 이렇게 말씀했다. 두 가지 큰 계명을 모두 지키기 위해 “우리는 율법과 사랑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려고 힘씁니다. 다시 말해, 계명을 지키고 성약의 길을 걸으면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려고 노력합니다.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 우리는 … 신성한 영감을 구해야 합니다.”(“두 가지 큰 계명”, 75쪽) 옥스 회장과 다음 연사들의 말씀을 시청하거나 읽어 보고 성약의 길을 따라갈 힘을 얻는다.

- 터렌스 엠 빈슨 장로는 이렇게 말씀했다. “우리는 와이파이보다 니파이가 더욱 필요[합니다]!”(“구주의 참된 제자”, 9쪽)
- 스티븐 더블유 오언 형제는 우리에게 세상과의 연결을 끊고 하늘과 연결함으로써 “영적 양분”을 찾으라고 격려했다.(“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충실한 자가 되십시오”, 12쪽)
- 미셸 크레이그 자매는 “계시를 받는 영적인 능력을 향상해 줄 네 가지 방법”에 관해 말씀했다.(“영적인 능력”, 19쪽)
- 게리 이 스티븐슨 장로는 이렇게 말씀했다. “우리는 계속 충실하고 방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만이 진리를 분별하고 자신의 종을 통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나를 속이지 말라”, 96쪽)
- 엠 러셀 벨라드 회장은 이렇게 말씀했다. “영원한 영적인 본성을 강화하고 악한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자제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이생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입니다.]”(“영이 육신을 다스리게 함”, 109쪽)
- 피터 엠 존슨 장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대적의 세 가지 공격 방법인 속임수와 방해, 좌절을 이겨 낼 수 있는지를 가르쳤다.(“대적을 이길 힘”, 110~112쪽)

어떻게 ...

복음을 나눌까?

복음을 나누는 것에 관해 크리스티나 비 프랑코 자매는 아래 질문을 던진 다음, 교회 회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 모두에 대한 대답은 ‘예’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 “우리 종교에 속하지 않은 친구에게 일요일에 우리와 함께 교회에 참석해 보자고 권유할 수 있을까요?”
- “친척이나 친구에게 물문경을 전할 수 있을까요?”
- “다른 사람이 FamilySearch[패밀리서치]에서 자신의 조상을 찾도록 돕거나, 주중에 「와서 나를 따르라」를 공부하면서 배운 교훈을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을까요?”
- “더욱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자가 되고 우리의 삶에 기쁨을 가져다주는 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을까요?”

크리스티나 비 프랑코, 본부 초동회 회장단 제2보좌, “복음을 나누는 일에서 기쁨을 찾음”, 85쪽.



부두에서 받은 영감

아파티아 실라가

우리 가족은 상처받은 상태였고 집으로 돌아가는 배는 4시간 뒤에야 있었다. 기도가 필요한 순간이었다.



그날 가족끼리 큰 말다툼이 있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배를 타야만 집에 갈 수 있는 곳에 있었다. 아주 심각한 수준의 말다툼이라고 했다.

아내는 화가 나 있었고 아이들도 마찬가지였다. 모두가 상처를 받았다. 어찌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나는 그날 아침 일찍 내가 사는 사모아 우폴루섬에서 작업용 트럭을 몰고 나와

사모아 사바이어로 가는 연락선을 탔었다. 이 길은 편도만 해도 몇 시간이 걸린다.

아내와 전화 통화를 하며 분노에 찬 그녀의 목소리를 들은 후, 솔직히 이 상황에 집으로 돌아가는 것은 무리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상처받은 가족들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알 수가 없었다.

나는 부두에 차를 세우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뒤로도 네 시간 동안 트럭에 앉아 집으로 향하는 배를 기다리며 가족에 대해 기도했다.

오랜 기도 후에 나는 명확한 영감을 받았다. “그저 아이들에게 사랑을 표현해라. 사랑을 표현해라. 그들에게 말하라. ‘나는 너희를 사랑하고, 하나님도 너희를 사랑하신단다’라고.”

아이들과 나는 늘 사이가 좋았다.

아이들은 내가 그들을 사랑하고 자기들이 나에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익히 알고 있다. 하지만 나는 우리 가족을 다시 가깝게 해 주는 길은 더 큰 사랑을 보이는 것임을 계시를 통해 명확하게 이해했다.

그날 밤 늦게 집에 도착했을 때, 아내는 아직도 화가 많이 난 상태였다. “어떻게 할 거예요, 당신?”

아내의 물음에 나는 내가 받은 계시를 이야기해 주었다. 아내에게 우리가 아이들에게 사랑을 더 확실히 표현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게 모두가 느끼는 이 고통을 치유할 열쇠라고 믿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해 보기로 했다.

그날은 마침 우리 가족이 매주 하는 가족 평의회 날이었다. 하지만 말다툼 때문에 이번 주는 가족들 대부분이 평의회를 취소하고 싶어 했다. 아내와 나는 그래도 가족 평의회를하기로 결정했다.

평의회 초반에는 침묵만이 흘렀다. 그날 다들 울기도 많이 울고, 극심한 감정적 고통을 겪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때 아내가 입을 열었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희가 알았으면 해.” 아이들의 태도가 변하는 것이 보였다. 의자 끝에 걸터앉아 있던 아이들이 아내가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하기 시작하자마자 의자에 등을 기대고 긴장을 풀었다. 곧 아이들도 속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나도 아이들에게 내가 자기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한 가족이라서 얼마나 기쁜지를 말해 주었다.

그러자 문제가 모두 해결되었다. 정말 놀라웠다. 우리 집에 머물던 분노가 사라지고 어긋난 것들을 고칠 수 있었다.

우리 가족은 지금도 완벽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서로 매우 사랑한다. 그리고 서로를 위해 시간을 낸다. 함께 경전을 읽기 위해 일찍 일어나고, 함께 교회에 가고, 농구를 하고, 같이 밥을 먹고, 아니면 그냥 함께 음악을 듣는 것 등을 하며 서로 가깝게 지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서 자녀들에게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나와 아내는 그 어느 때보다도 잘 알고 있다. ■

이 아버지에게서 배울 점

- 실라가 형제는 혼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가족에게 도움이 될 계시를 받기 위해 오랜 시간 기도했다.
- 실라가 가족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정의 중심에 둔다. 그들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가족 경전 공부를 위해 일찍 일어난다. 이 가족은 매주 가족 평의회를 하고, 교회에 참석한다. 그들은 가족과 가정에 복음의 축복을 가져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한다.
- 실라가 형제는 말다툼에 대해 자녀들과 이야기하기 전에 아내와 먼저 상의했다.
- 실라가 형제와 실라가 자매는 자신들이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계속 틈틈이 이야기해 준다.
- 실라가 가족은 함께 일하고, 함께 즐거운 시간도 보낸다. 그들은 십이사도 정원회의 디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장로가 전한 다음 권고를 모범으로 보여 준다. “가족 관계에서 **사랑**은 함께 보내는 **시간**으로 표현됩니다. 서로를 위해 시간을 내는 것이 가정에서 조화를 이루는 비결입니다.”(“가장 중요한 것들”, 『리아호나』, 2010년 11월호, 21쪽)



이번 호 이야기

44 새로운 회원: 여러분이 있을
곳은 이곳입니다
브라이언 에스 킹

46 난임을 달고 교회 회원으로
살아가는 일
조디 킹

온라인 전용

우리는 모두 소속감을 느끼고 싶어 한다
에릭 비 머독

나를 환영해 주는 교회의 품 안으로
돌아오다
레이철 윌슨

내성적인 사람이 일요일에 살아남는 법
애스펜 스탠더

아래에서 이 기사들과 그 외의 더 많은 자료를
찾아본다.

- liahona.ChurchofJesusChrist.org
- (복음 자료실 앱의 “청년 성인” 섹션에 있는) **청년 성인 주간 메시지**
- facebook.com/liahona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다른 사람과 나누고 싶은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까? 아니면 특정 주제에 관한
기사를 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글이나 피드백을 liahona.ChurchofJesusChrist.org로
제출해 주십시오.

우리가 소속감을 느끼는 데 공통으로 겪는 어려움

방에 들어섰을 때 모두의 시선이 자신에게 쏠리는 것을 느껴 본 적이 있습니까?
더 심하게는, 여러분이 왔다는 걸 아무도 모르겠다는 기분이 들었던 적은요?
저는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어딘가에 소속되는 것에 대한 갈망이
있으므로 그런 상황은 마음에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가 함께 모이게 합니다. 하지만 때때로 우리는 저마다 다른
사정으로 **소속감을 느끼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교회의 많은 회원 중에는 **자신의 길을 찾으려 노력하는** 새로운 개종자들이 있습니다.
44쪽에서 저는 소속감에 대한, 그리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기대치에 부응하는 것에 관한
저의 관점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이야기할 것입니다.

세상에는 또한 조디와 그녀의 남편처럼 난임이나 다른 시련 탓에 **소속감을 느끼기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46쪽에서 조디의 이야기를 읽어 보십시오.

온라인 전용 기사에서 레이철은 교회로 돌아왔을 때 자신을 환영해 준 회원들 덕택에
어떤 큰 변화가 생겼는지 이야기합니다. 에릭은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의 몸에서 필요한
부분임을 가르치며, 애스펜은** 남보다 비교적 내성적인 성격인 사람이 교회에서 소속감을
느끼고 성공하는 방법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교회에는 자기가 이곳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도
그중 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든 회원이 환영받겠다고 느끼도록 **누구나
각자의 방식으로 도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속감을 느끼는 것은 상황이 아니라 자신이
진정 누구이고 어떤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는가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교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진실한,
브라이언 에스 킹



새로운 회원: 여러분이 있을 곳은 이곳입니다

그릇된
기대를 채우려
노력하는
중인가?



브라이언 에스 킹

누 군가를 만날 때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는가? 여러분의 정체성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내 이름은 브라이언이다.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회원이다. 하지만 내가 늘 이 교회에 진정으로 속해 있다는 느낌을 받았던 것은 아니다.

나는 대학 1학년 때 교회에 들어왔다. 침례를 받은 직후부터 회원들은 좋은 뜻에서 “선교 사업을 나갈 거니?”라는 질문을 하기 시작했다. 선교 사업은 내가 아직 진지하게 고민해 보았던 문제가 아니었다. 그러나 나는 사람들이 ‘예’라는 대답을 기대한다고 느꼈다.

나는 이대로 충분한가?

교회에 들어간 지 꼭 1년만에 나는 영국에서 선교사로 봉사하라는 부름을 받았으며, 열심히 가르치겠다는 열의에 가득 차 그곳에 도착했다. 그러나 며칠이 안 되어 나는 내가 심한 향수병에 걸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전임 선교사로 봉사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선교부 회장님과 전화로 내가 느끼는 감정을 얘기하는데, 회장은 “내 영혼이 햇빛을 받아”(찬송가, 153장)라는 노래를 불러야 한다는 느낌을 받으셨다. 나는 좀 이상하긴 했지만 밝고 따뜻한 느낌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주일 후에 나는 집으로 가는 비행기를 탔다. 비행기를 타고 오는 내내 내 감정과 씨름했다. 남들이 내 선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이 태산이었다. 어쨌든 선교사로 봉사하기 위해 친구와 가족을 뒤로하고 학교까지 연기했는데 2년을 꼭 채워 봉사하지 않았다는 사실 때문에 스스로에게 화가 났다. 그토록 가슴 아픈 일을 많이 견뎠는데, 정작 그분이 필요한 지금 이 시간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버리신 것만 같았다. 모든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내가 이곳에 속해 있는 게 맞는지 의구심마저 들었다.



있는 그대로 오라

집에 온 지 일주일 후, 가장 친한 친구의 가족이 연차 대회를 보러 오라고 나를 초대했다. 정말 마음이 내키지 않았다. 그래도 나는 그곳에 갔다.

모임 중간쯤에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님이 연단으로 걸어나오셔서 “내 영혼이 햇빛을 받아”라는 문구로 말씀을 시작하셨다. 2주 전에 선교부 회장이 느닷없이 불러 주신 찬송가와 똑같은 내용의 말씀이었다. 영이 이렇게 속삭였다. “이 교회가 네가 속해 있는 곳이다.” 말씀이 이어진 그다음 15분 동안, 나의 관점은 완전히 바뀌었다.

서로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느낄 때 우리는 자신이 이곳에 속해 있다는 느낌을 잃어버리기 쉽다. 그렇지만 우리는 모두 부족한 존재들이다.(로마서 3:23 참조) 그리고 물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교회 안에 여전히 우리 각자를 위한 자리가 있다고 말씀하신다.(고린도전서 12:20~23 참조)

홀런드 장로님은 그 연차 대회 말씀에서 이렇게 가르치셨다. “사랑하는 아버지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있는 그대로 오라’고 하시며, ‘변화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입으로 부르는 노래, 마음에서 울리는 노래”, 『리아호나』, 2017년 5월호, 51쪽)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누구든, 또는 무엇을 했든 간에 우리가 이곳에 있기를 바라신다. 그래야만 우리가 앞으로 될 모습을 바꾸는 데 도움을 주실 수 있기 때문이다.(제3니파이 18:22 참조)

홀런드 장로님의 말씀을 듣기 전만 해도 나는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으려면 모든 기대를 충족해야 한다고만 생각했다. 이제 나는 주님의 교회가 이미 완전해진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완전해지도록 돕기 위한 곳임을 더욱 잘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분을 따르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그분의 교회에 속하게 된다. ■



브라이언 에스 킹은 브리검 영 대학교에서 가족학을 전공하고 있다. 그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시골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며 산에서 보내는 시간을 즐긴다.

새로운 회원이었을 때 내가 알았더라면 좋았을 다섯 가지

1. 자기 자신이 된다. 여러분의 고유한 개성과 은사는 교회 전체를 강화한다.(고린도전서 12장 참조)
2. 참여한다. 여러분과 같은 가치를 공유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이면 성약의 길에 머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3. 성전에 간다. 성전에서 시간을 보내거나 성전에 갈 준비를 하면 영원한 관점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4. 가장 중요한 것에 집중한다. 여러 가지 일에 치일 때는 성약을 지키고 성약을 맺도록 준비하는 데 집중한다.
5. 자신에 대해 인내한다. 자신의 속도에 맞추어 진행하되, 다른 사람과 비교해 자신을 판단하지 않는다.



난임을 딛고 교회 회원으로 살아가는 일

난임 문제를 겪으면서 나는 교회에 설 자리가 없다는 느낌을 받았다.

조디 킹

난임

편 카메라와 나는 난임 문제로 어려움을 겪기 전까지만 해도 교회에서 소외감을

느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보통은 교회에서 아이들과 가족들을 보는 일이 기쁨이었는데, 이제는 그런 일이 슬픔과 고통을 안겨 주기 시작했다. 품에 안을 아기도 없고 손에 들 기저귀 가방도 없는 나는 공허감을 느꼈다. 상호부조회에서는 놀이 그룹이 공지되었고, 엄마들은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모든 공과가 모성에 관해 말하는 것 같았다.

마치 길을 잃은 듯했다.

나는 놀이 그룹에 데려갈 아이도 없었고, 복음 안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에 관해 말할 개인적인 경험도 없었다.

어머니가 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와드의 자매들과 친해지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만, 나는 엄마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과 아무런 연결 고리도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가장 힘든 일요일은 새로운 와드에 처음으로 참석하는 날이었다. 우리에게 아이가 없으니, 사람들은 우리가 신혼 부부인지, 언제 자녀를 가질 계획인지를 물어왔다. 상처를 줄 의도로 하는 질문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으므로, 나는 그런 말에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요령껏 대답하는 법을 터득해 왔다.

그러나 이번 일요일에는 그런 질문에 대답하는 것이 특히 힘들었다. 임신은 한 줄 알고 희망을 품었다가 그게 아니었음을 막 알게 된 참이었다.

나는 우울한 마음으로 성찬식 모임에 들어갔고, “자기 소개”를 요구하는, 판에 박힌 질문에 답하기가





힘들었다. 성찬식 동안 나는 회중을 훑어보며 남편과 내가 친하게 지낼 만한, 자녀 없는 젊은 부부가 있는지를 찾아보았다. 그러나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정말 상처가 된 것은 주일학교 시간이었다. 어머니의 신성한 역할을 주제로 한 공과는 급선화하여 어머니로서 힘든 점을 토로하는 시간이 되어 갔다.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받고 싶은 그 축복에 대해 자매들이 불평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나는 마음이 무너져내렸다. 눈물이 소리없이 불을 타고 흘러내렸다.

나는 황급히 교회를 나왔다. 처음에는 교회로 돌아가고 싶지가 않았다. 다시는 그런 소외감을 느끼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그날 밤에 남편과 이야기를 나누고 나서, 우리는 앞으로도 우리가 교회에 참석하리라는 것을 깨달았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회에 계속 참석하라고 명하셨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것은 우리 둘 다 성약을 새롭게 하고 교회에서

영을 느낄 때 얻게 되는 기쁨이 그날 내가 느꼈던 슬픔보다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다.

누구나 때로 소외감을 느낀다

이것은 4년 전의 일이다. 세월은 흘렀으나 여전히 내 품에는 아기가 없고 손에도 기저귀 가방이 없다. 하지만 나는 내가 이 교회에 소속되어 있음을 그 어느 때보다도 잘 알고 있다.

슬픔에 대처하는 동안, 나는 주변 사람들을 더 잘 관찰하게 되었다. 나는 아직도 회중을 훑어본다. 하지만 이제는 교회에서 소외감을 느끼며 참석하는 사람을 찾으려 노력한다. 그리고 나는 누구나 때로 소외감을 느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사별했거나 이혼했거나 독신인 회원들, 복음을 떠난 가족을 둔 이들, 만성 질환이나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 동성에게 끌리는 회원들, 중독이나 의심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회원들, 최근에 개종한 이들, 새로 이사온 이들, 장성한 자녀를 떠나보낸 사람들 등등 교회 사람들은 끝없이 이어지는 이런 명단에 속해 있다.

우리 각자는 우리가 처한 시련이나 상황 때문에 외톨이처럼 느낄지도 모르지만 진실은 이것이다. 각자의 고유한 삶과 개인적인 역경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교회에 더 속하게 된다.

이제는 소외감을 느끼며 교회에 참석하는 사람에게 주목하려고 노력한다.

우리는 구주와 함께한다

교회 회원이 되는 목적은 구주를 따르는 데 있다. 우리는 구주와 함께하며, 그래서 그분의 교회 회원이 된다. 그분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이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마태복음 11:28)

구주께서는 우리가 처한 상황에 관계없이 당신께 나아오라고 권유하신다. 우리는 성약을 새롭게 하고, 신앙을 키우고, 평안을 찾고, 주님께서 당신의 삶에서 완벽히 보여 주신 것처럼 행동하기 위해, 즉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는 이들에게 성역을 베풀기 위해 교회에 간다.

내가 상호부조회에서 자녀가 없는 유일한 사람일 때도 있을 것이다. 사람들이 왜 아직도 우리에게 자녀가 없는지 물을 때도 있을 것이다. 그런 순간이 힘들 수도 있지만, 그런 많은 어려운 순간보다 더 많은 즐거운 경험도 하게 된다.

교회에서 영을 느끼고 구주에 대한 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혼자라는 느낌보다 언제나 클 것이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평안이 있음을 안다. 나는 교회에 참석함으로써 내가 치유될 수 있음을 안다. 우리가 계속 행한다면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안다. 교회의 다른 사람들이 겪는 시련과는 동떨어진 시련을 겪을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더욱 공감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는 그러한 경험들로 하나가 될 수 있다.

나는 내가 간증을 나누고 마음을 연다면 다른 사람들이 자신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 속해 있음을 이해하도록 도울 수 있음을 안다. ■



조디 킹은 미국 아이오와주에서 자랐으며, 언제나 그곳을 고향으로 여길 것이다. 그녀는 브리검 영 대학교에 다니는 동안 남편을 만나 결혼했다.

그녀는 현재 유치원 교사로 일하고 있으며, 온라인 비서로도 활동하고 있다.



청년 성인

소외감을 느끼는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모두 그분의 교회에 속한다.
교회 안에서 자리를 찾을
방법에 관한 청년 성인들의
이야기를 읽어 본다.

42



청소년
연차 대회 학습 노트를
활용해 연차 대회를
준비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공부해 보자!

어린이
이노스처럼 기도하는
법을 배운다.

친12~친13

친20~친23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교회



친구들



**이노스에 대해
알아보세요!**

친12~13쪽, 친20~23쪽에서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어떤 방법으로 말씀하시나요?

우리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말린 에이치 옥스 회장
제일회장단 제1보좌

하 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조셉 스미스가 어느 교회가 옳은지 기도로 여쭈었을 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직접 나타나셔서 조셉과 마주 보고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은 주로 성신을 통해서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머릿속에 생각을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느낌을 전해 주십니다.



1.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복음이 참되다는 느낌



2. 슬프거나 외로울 때 위로받는 느낌



3. 회개한 뒤 느껴지는 행복한 느낌



4. 아름다운 음악을 듣거나 훌륭한 예술 작품을 볼 때 오는 좋은 느낌



5. 어떤 것이 좋은 선택인지를 알려 주는 평안한 느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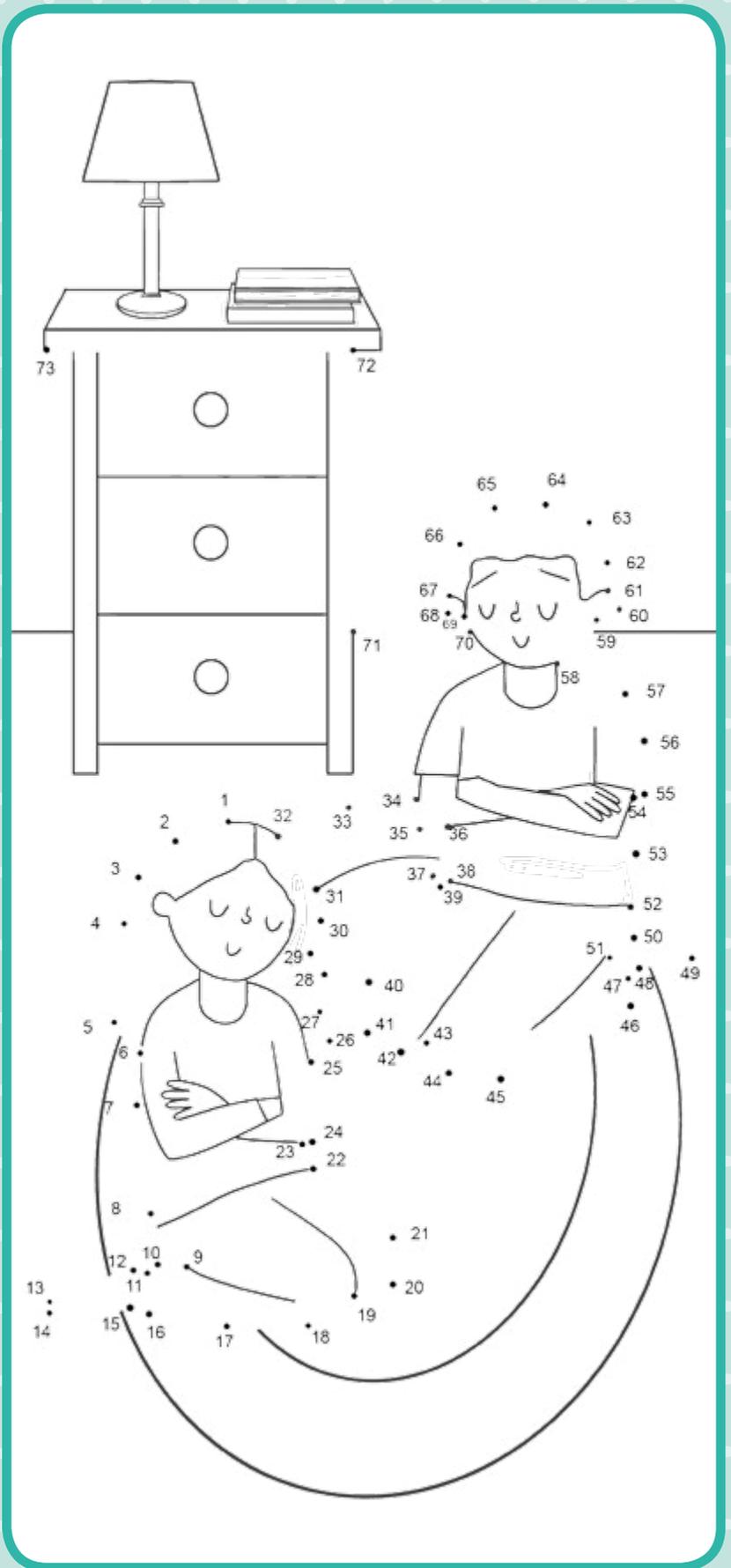
6. 어떤 것이 잘못되었다고 경고하는 느낌



옳은 일을 선택하고 귀를 기울이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신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계시”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해 계시를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옳은 일을 선택하고 성신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노력한다면 하나님과 예수님은 중요한 순간에 우리를 돕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

Adapted from "Eight Ways God Can Speak to You," New Era, Sept. 2004, 4-8.



저는 어떤 아름다운
건물에 관한 꿈을
계속 꾸었어요!



케이티 모델
교회 잡지
실화에 근거함

앤서니의 꿈

잠에서 깨어난 앤서니는 깜짝 놀랐어요. 똑같은 꿈을 꾸
것이 벌써 세 번째였거든요! 꿈속에서 키가 큰 한 남자가
앤서니에게 아름다운 건물을 보여 주었어요.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앤서니는 학교 선생님이었고, 자신이 살던 동네 외에도
나이지리아의 여러 곳을 방문해 본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꿈속의 건물은 전혀
본 적이 없는 곳이었어요. 어쩌면
실제로 존재하는 건물이 아닐 수도
있었어요. 그 건물은 무언가 특별해
보였어요.

몇 년이 지나고 나서도
앤서니는 그 꿈을 생각했어요.
하지만 앤서니는 다른 일로도
걱정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나이지리아에서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이었어요. 앤서니 부부와
아이들은 집 밖으로 나가는 것도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하루 종일

집 안에만 있는 것도 힘든 일이었어요. 앤서니는 친구들과
학생들이 보고 싶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앤서니는 집에서 오래된 잡지를 하나
발견했어요. 그 잡지를 펼쳐 보았을 때, 무언가
익숙한 것이 보였어요.

바로, 꿈에서 보았던
그 아름다운
건물이었어요! 그
건물은 실제로 있는
곳이었죠.

그곳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건물이었어요.
앤서니는 생각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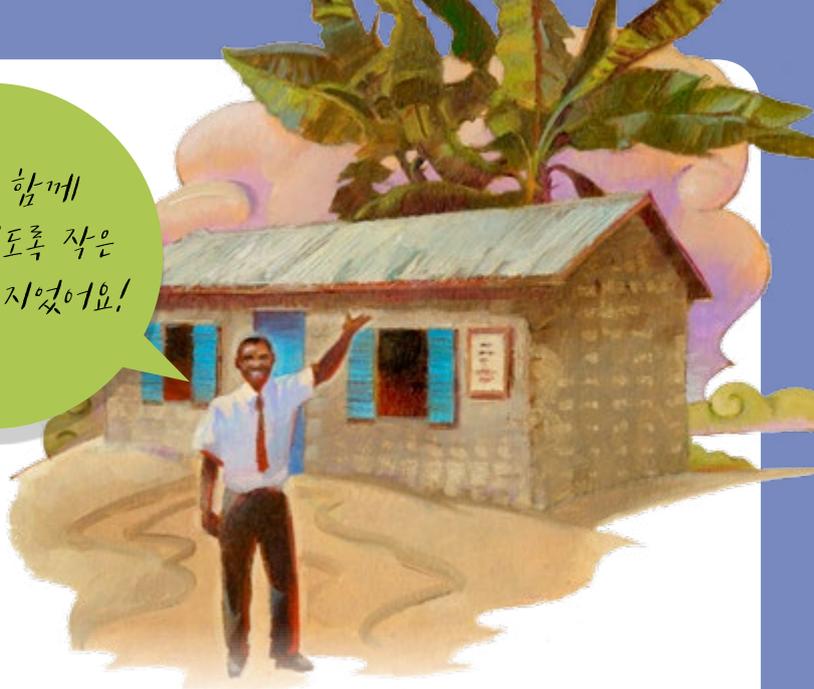
정말 처음 듣는 이름의
교회인걸?

앤서니는 그곳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었지만, 전쟁 때문에
집을 떠날 수가 없었어요. 앤서니는
기다려야 했어요.

이것이 제가
꿈에서 본
그 건물이에요!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있도록 작은
예배당을 지었어요!



마침내 전쟁이 끝났을 때, 앤서니는 솔트레이크시티에 있는 교회 본부로 편지를 보냈어요. 앤서니는 자신과 가족들을 가르칠 선교사들을 보내 줄 수 있는지 물었어요. 앤서니는 편지에 이렇게 적었어요. “제가 사는 마을에 교회를 지어 주실 수 있습니까? 제가 다른 마을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경전도 보내 주십시오.”

하지만 교회 본부로부터 다음과 같은 답장을 받았을 때 앤서니는 슬픈 마음이 들었어요. “현재 나이지리아에는 선교사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 대부분의 흑인은 신권을 받지 못하고 있었어요. 또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에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을 때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앤서니는 주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았어요. 아직 침례는 받지 못했지만, 앤서니는 자기 신앙을 굳건히 지켰어요.

교회에서는 앤서니와 가족들에게 물문경 등 교회의 여러 책들을 보내 주었어요. 앤서니는 그 책들을 공부했고, 자신이 배운 것을 마을 사람들에게 가르쳤어요.

복음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생겼어요. 앤서니는 그들 모두가 함께 모일 장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앤서니는 바나나 나무가 늘어선 길 위에 파란 문과 덧문을 단 작은 예배당을 지었어요. 건물 정면에는 “나이지리아 후기 성도”라고 쓰여 있었어요.

몇 년이 흘렀어요. 어느 날 앤서니는 아주 기쁜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모든 합당한 형제들은 신권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앤서니가 사는 마을에 선교사들을 보내기로 했어요!

교회 건물과 침례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수많은 사람을 보았을 때, 선교사들은 깜짝 놀랐어요. 선교사들은 앤서니와 마을 사람들의 신앙에



그리고 마침내
침례를 받았지요!

감탄했어요.

앤서니는 선교사들에게 말했어요. “길고 힘든 기다림이었지만, 이제 괜찮습니다. 결국 여러분이 오셨으니까요.”

앤서니는 나이지리아 에케오누미리강에서 침례를 받은 첫 번째 사람이 되었어요. 새 지부가 조직되었고, 앤서니는 지부 회장으로 부름받았어요. 앤서니의 부인인 피텔리아는 상호부조회 회장이 되었어요. 몇 년 뒤에 두 사람은 성전에서 인봉되었어요.

앤서니는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신앙을 나누었어요. 앤서니는 나이지리아에 심어진 복음의 씨앗이

거대한 나무로 자라날 것이라고 사람들에게 말하곤 했어요. 그리고 세상은 복음의 성장에 놀랄 것이라고도 말했지요.

앤서니의 말이 옳았어요. 오늘날 나이지리아의 교회에는 17만 명이 넘는 회원들이 있고, 아름다운 성전도 있어요! 앤서니가 자신의 힘을 보태어 심었던 복음의 씨앗은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자라나고 있어요. ●

앤서니 우조덤마 오비나(1928~1995)는 교회나 나이지리아에서 성장하여 “강한 성도의 중심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어요. 지금 나이지리아에는 7개의 선교부와 50여 개의 스테이크, 그리고 성전도 한 곳이 세워져 있어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사모아예요!



Talofa[탈로파]!
(사모아어로 “안녕하세요?”라는 말)
우리는 마고와 파올로예요.
우리 함께 사모아로 떠나 볼까요!



사모아는 태평양에 있는 섬나라예요.
사모아는 큰 섬 두 개와
작은 섬 네 개로 되어 있어요.



사모아의 많은 사람이 벽이 없는 집인
fales[팔레스]에서 살아요.
음식은 밖에서 불을 지펴 만들지요.



사모아 사람들은 노래하는 걸
좋아해요! 이 어린이들은 초등학교에서
노래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 LE EKALEZIA A
IESU KERISO
○ LE AU PAIA ○ ASO
E GATA AI

사모아어로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는 이렇게 말해요.
O Le Ekalesia a Iesu Keriso o le Au Paia
o Aso e Gata Ai. [오 레 에칼레스시아 아 이에수
케리소 오 레 아우 파이아 오 아소 에 가타 아이]



많은 사람이 돼지와 닭을 키우고,
개를 데리고 사냥을 해요.





사모아에선 코코넛을 즐겨 먹어요.
모두가 코코넛을 따고 껍데기를 벗기는
일을 도와요. 코코넛 껍데기는
음식을 만들 불을 지피기 위해 연료로
사용되기도 해요.



사모아에 있는 친구들을 만나 보세요!



저는 초등학교 노래를 부르는 걸
좋아해요. 제가 좋아하는 노래는
“Mother, Tell Me the Story
[어머니 이야기해 주세요]”와
“난 하나님의 자녀”예요.

메리 브이, 5세, 사모아 사바이섬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
기도를 듣고 응답하신다는 걸
알아요.

알렉스 에스, 11세, 사모아 우플루섬

사모아에 살고 있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내 주세요!
우리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우리의 사모아 탐험에 함께해
주어서 고맙워요. 다음에 만나요!

섬에 사는 사모아 사람들은
늘 바다 가까이 있어요.



오늘을 좀 더 행복하게 만들어 줄 음악

데이비드 덕슨
교회 잡지
실화에 근거함

엘리자베스는 속이 빈 코코넛 껍데기를 흠길 아래로 걷어챘어요. 그리고 코코넛이 데굴데굴 굴러가는 걸 보면서 얼굴을 찌푸렸죠. 오늘은 별로 즐겁지 않은 날이에요.

정말 별로예요!

엘리자베스는 학교에서 라기한테 기분 나쁜 말을 들었어요. 반 친구들 앞에서 수학 문제를 풀었을 때는 답이 틀리는 바람에 깔깔거리는 친구들의 비웃음도 들었고, 미술 과제도 망치고 말았어요.

“이건 불공평해!” 엘리자베스가 말했어요. 운이 나쁜 날은 도대체 누가 만든 걸까요?

엘리자베스는 예쁜 하비스쿠스 꽃을 따어요. 그래도 좋은 일이 한 가지는 있네요. 사모아에서는 기분이 좋지 않은 날에도 곳곳에서 예쁜 꽃들을 찾을 수 있어요.

엘리자베스는 그 분홍 꽃을 꼬아서 머리에 꽂고는 집으로 걸어갔어요.

“Talofa!” [탈로파: 사모아의 인사말] 아빠가 엘리자베스를 반겨주셨어요. “오늘 하루는 어땠니?”

엘리자베스는 고개를 푹 숙였어요. “별로였어요.” 엘리자베스는 마당의 꿀꿀거리는 돼지들을 지나 현관 베란다로 가서 아빠 곁에 앉았어요.



엘리자베스가 오늘이 얼마나 힘든 날이었던지 이야기하는 동안, 아빠는 옆에 앉아 귀를 기울여 주셨어요.

아빠는 엘리자베스를 안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속상했겠네. 아빠도 그런 날들이 많이 있었지. 그럴 때 아빠한테 도움이 되었던 게 뭔지 알려 줄까?”

엘리자베스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아빠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셨어요. 그건 엘리자베스도 잘 아는 노래였어요. 아빠는 이 아름다운 사랑 노래를 엄마에게 항상 불러주셨지요.

엘리자베스는 웃으며 아빠의 어깨를 툭 밀쳤어요. “아빠도 참!”

아빠는 활짝 웃으셨어요. “아빠는 진지한데! 좋은 음악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거든. 아, 그리고 음악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엘리자베스는 아빠가 무슨 말씀을 하실지 알았어요. 피아노를 연습할 시간이었거든요.

엘리자베스는 무엇보다도 교회에서 연주하기 위해서 피아노를 배우고 싶었어요. 엘리자베스는 원래도 가족과 함께 노래하는 것을 무척 좋아했어요. 특히 아빠랑요. 하지만 피아노 연주는 그보다 어려운 일이었어요. 맞는 음을 찾기 위해 손가락을 부지런히 움직여야 했지요.

엘리자베스가 말했어요. “오늘은 별로 연습하고 싶지

않은걸요.”

아빠는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네가 연주하는 곡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보렴. 찬송가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느끼는 데 도움이 되거든.”

그런 뒤 아빠는 샌들을 벗고 저녁 식사 준비를 돕기 위해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엘리자베스도 샌들을 벗고 따라 들어갔어요. 엄마가 스투를 짓는 동안 아빠는 채소를 써셨어요.

키보드 위에는 “Fa’afetai i Le Atua”[하나님께 감사드리세]라는 노래 악보가 올려져 있었어요. 엘리자베스는 이 사모아 찬송가를 정말 좋아했어요. 이 찬송가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마음을 표현한 노래였어요.

엘리자베스는 전자키보드를 쳐서 연주를 시작했어요. “네가 연주하는 곡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보렴.”



엘리자베스는 아빠가 하셨던 그 말씀처럼 해 보았어요. 엘리자베스는 감사함을 느끼는 모든 것을 떠올려 보았어요. 가족. 집. 음악. 아름다운 사모아.

그러자 손가락으로 음을 찾는 게 더 쉬워졌어요. 얼마 후에는 기분도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엘리자베스는 평안을 느꼈고, 웃음도 났어요. 엘리자베스는 성신을 느끼고 있었어요!

채소 써는 소리가 멈추고, 찬송가를 흥얼거리는 아빠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아빠는 엘리자베스 옆에 서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셨어요.

엘리자베스는 연주를 계속 했고, 곧 엄마도 같이 노래를 부르셨어요. 엘리자베스는 하나님께서 자신과 가족을 축복하신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 계속 생각했어요.

연주가 끝나자, 아빠는 몸을 숙이고 이렇게 물으셨어요. “기분이 조금 나아졌니?”

엘리자베스가 답했어요. “네! 아빠 말씀이 맞았어요. 좋은 음악 덕분에 오늘이 더 행복한 날이 되었어요!” ●

힘든 날 여러분의 기분을 좋게 해 주는 것은 무엇인가요?



건초지와 신권 축복



잭 앤 제라드
장로
칠십인 정원회

“보혜사[는] 곧 ... 성령”이니라.(요한복음 14:26)

어린 시절에 저희 집에는 소 떼와 들판이 있는 작은 농장이 있었습니다. 농장에서 자라는 것은 힘든 일이었습니다.

어느 무더운 여름날, 형과 함께 밭에서 일을 할 때였습니다. 거세게 몰아친 바람 때문에 공기는 먼지로 자욱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알레르기가 심했는데, 때로는 건초에서 일어난 먼지 때문에 그 증상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눈물이 나오고, 숨을 쉬기가 어려웠습니다. 어찌나 많이 문질렀는지, 코에서는 피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밭에 오신 어머니는 저를 보시고는 집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침상에 누이시고 얼굴에 젖은 천을 대 주셨습니다. 몇 분 후, 어머니는 두 분의 농부 아저씨들과 함께 돌아오셨습니다. 두 분 다 멜빵바지를 입고 건초 먼지를 뒤집어쓴 모습이었습니다.

그분들은 저희 와드의 회원들이셨습니다. 두 분은 제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을 주셨습니다. 제 아버지는 당시 교회 회원이 아니셨기 때문에 신권이 없으셨습니다. 그 선한 형제님들이 축복을 주셨을 때 받았던 느낌을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따뜻하고, 평안하고, 마음을 진정시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통증도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나중에야 그 느낌이 성신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신은 보혜사[Comforter: 위로하는 자—웁긴이]라고도 불립니다. 저는 그 이름이 마음에 듭니다. 왜냐하면 저는 성신을 통해 위안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신은 제 몸과 마음 모두를 편안하게 해 주었습니다.

성신은 위대한 축복입니다. 성신이 가져다주는 평안을 구하고, 매일 그러한 평안이 여러분에게 깃들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

엘리자 브로드벤트와의 인터뷰에서 가져옴



성신으로부터 받는 위안

성신으로부터 위안을 받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래에 있는 미로에 몇 가지 방법이 그려져 있어요.
미로를 통과해서 길을 찾을 수 있겠나요?



출발
↓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요한복음 14:27)



→ 도착



나도 이노스처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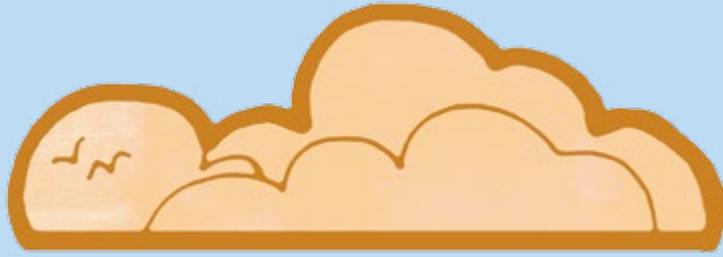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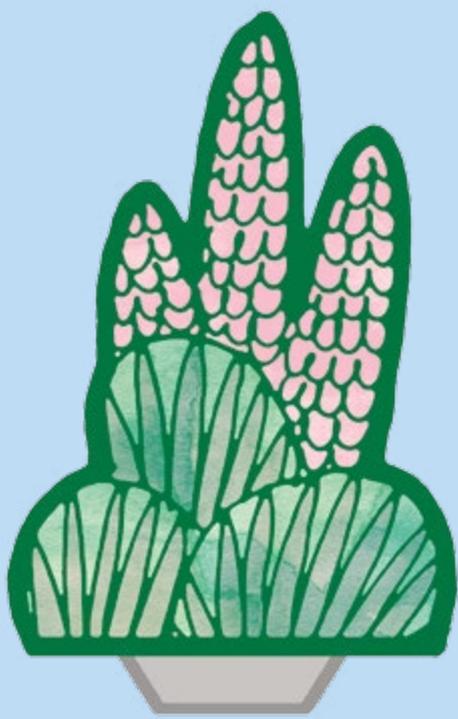
이노스는 온종일 기도하고
 되었어요! 물론경의 이노스
 “이노스의 기도” 라는 글에

기도할 때 이렇게

- “사랑하는 하나님
 시작합니다.
- 하나님이 주신 축
 오늘 있었던 일
 말씀드립니다.
- 필요한 것을 하
 필요한 사람들을
- “예수 그리스도의
 아멘.” 하고 말하
- 성신의 소리를 듣

이노스처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을 받을
 말이에요. 때로는 응답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

풀
 테이프를
 그림들을 작은
 종이에 붙여서 이
 표현해



기도할 수 있어요

고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서 1장이나 친20쪽에 나오는
서 이 이야기를 읽어 보세요.

해 보세요.

님 아버지"라고 말하며

복에 감사드립니다.

나 여러분의 마음속 느낌을

님께 부탁드립니다. 도움이
위해 기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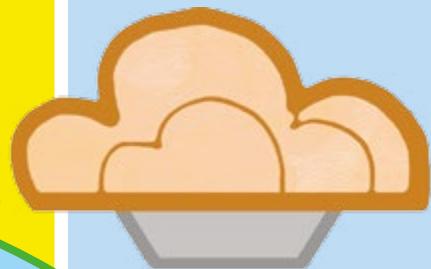
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며 기도를 마칩니다.

를 기 위해 잠시 기다립니다.

음성을 듣지는 못하더라도 그 외의 다른
수 있어요. 바로, 생각이나 느낌을 통해서
을 받는 데 시간이 걸리기도 해요. 하지만
분을 사랑하세요!

이나
이용해 이
상자나 두꺼운
노스의 이야기를
보세요.



삽화: 애덤 코포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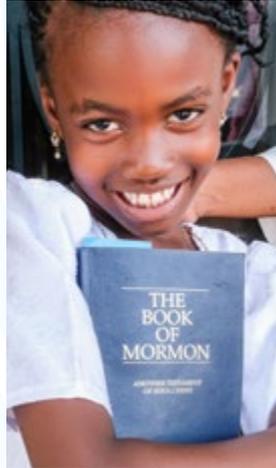


어린이 발표



차 레받았을 때 저는
□ 중요한 발걸음을
내딛게 되어 무척 기뻐어요.
침례와 확인을 통해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사리 델마르 알, 8세, 콜롬비아
바에델카우카**



가 족이 함께
둘러앉아 연차
대회를 보는 날이 참
좋아요.

**페이스 엠, 9세,
탄자니아 다르에스살람**



우 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로 도움을
구해야 해요.

**요한 피, 8세, 프랑스
브르타뉴**



저 는 연차 대회가
좋아요.

선지자가 말씀하고
간증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으니까요.
선지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게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알도록
도와주세요.

푸키 엠, 10세, 일본 시즈오카



저 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해요.

하나님께서서는 제가
착한 일을 할 때
기뻐하세요. 저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모든 것에 대해
감사드려요.

블라드, 4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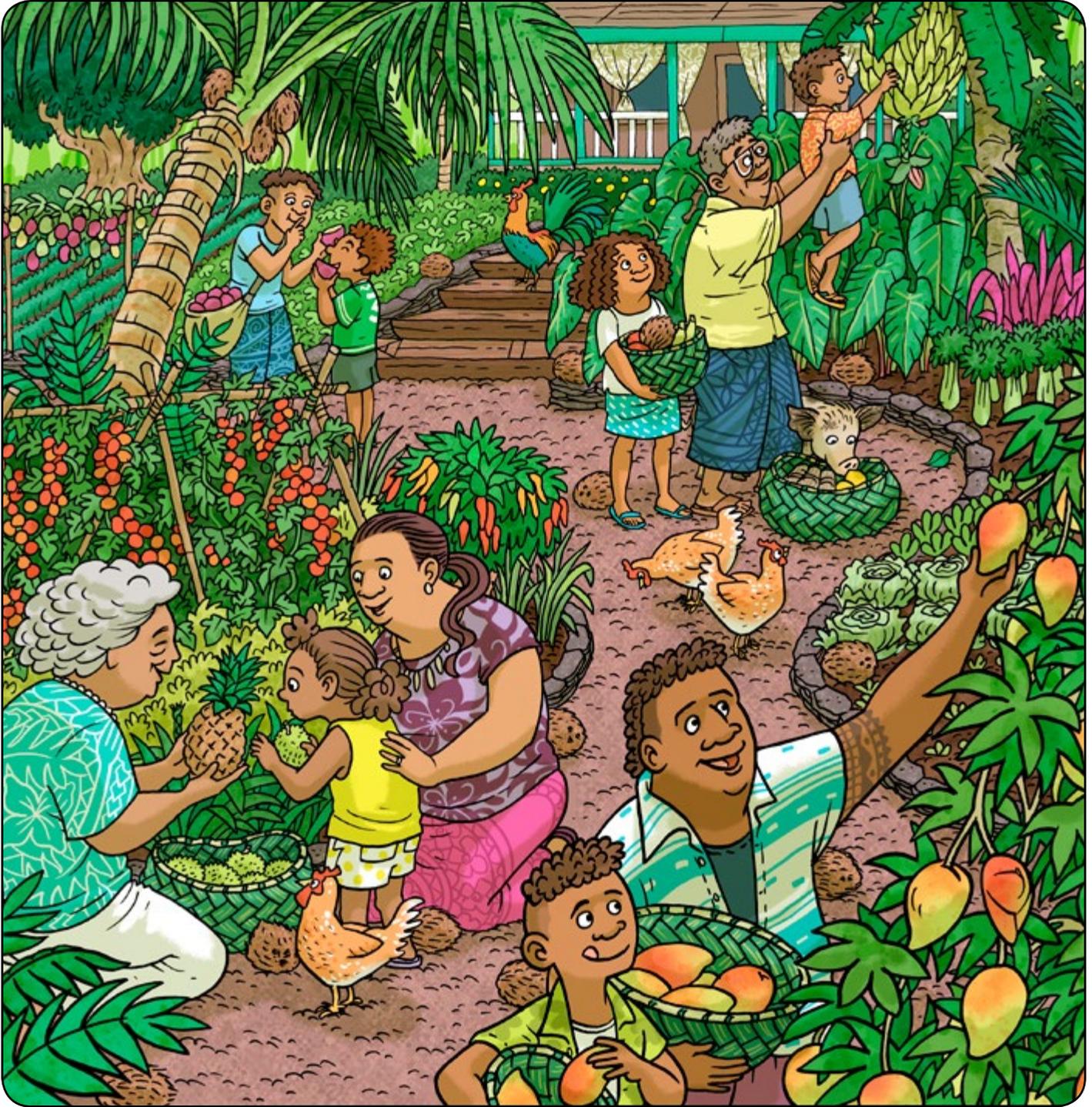
하 나님 아버지의 계획에서
중요한 부분은
가족이에요. 저는 가족과
함께 하늘에서 영원히 살고
싶어요. 우리 가족은 다 함께
기도하고, 서로의 기운을
북돋아 주고, 서로 도와요.
저는 가족들을 사랑해요.

카티야, 10세



숨은그림찾기

이 가족은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먹을거리를 모으고 있어요.
코코넛 열다섯 개를 찾을 수 있나요? 그런 다음, 숨겨진 다른 물건들도 찾아보세요.



상화: 최 달린



이 자벨은 기도하는 걸 정말 좋아했어요! 아침이 되면, 이자벨은 아침 인사를 하듯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햇빛과 새로운 하루를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면서요.

점심시간에는 그때까지 있었던 일들에 대해 하나님 아버지께 말씀드리고, 학교에서 돌아온 언니들을

친절히 대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기도했어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온 가족이 함께 기도했어요. 가족 기도를 하기 전에는 언제나 축복이 좀 더 필요할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대해 식구들끼리 이야기를 나눴어요.

오늘은 아빠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댄 삼촌을 위해 기도해 주렴. 삼촌이 직장을 잃었거든.”

이자벨은 마음이 슬펐어요. 어른들의 일에 대해서는 잘 몰랐지만, 직장을 잃는 게 안 좋은 일이라는 건 알았어요. 이자벨은 삼촌을 정말 좋아했어요. 삼촌은 맛있는 팝콘을 만들어 주신 적도 있고, 지난번에 오셨을 때는 이자벨에게 옆 돌기 하는 방법도 보여 주셨어요!

댄 삼촌을 위해 기도할래요



“삼촌이 직장을 구하시도록 기도할게요.” 마리아가 말했어요. 마리아는 이자벨의 언니 중 한 명이에요. 그날은 마리아가 가족을 위해 소리 내어 기도할 차례였어요.

다음 날, 이자벨은 아빠께 댄 삼촌이 직장을 구하셨는지 여쭙어 보았어요.

아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직은 구하지 못했어. 기도에 대한 응답이 곧바로 오지 않을 때도 있거든.”

“그러면 우리가 삼촌을 위해 계속 기도해야 할까요?” 이자벨이 다시 묻자

아빠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댄 삼촌에게 많은 도움이 될 거야.”

이자벨과 언니들은 매일 댄 삼촌을 위해 기도했어요. 자매들은 삼촌이 직장을 구하실 수 있도록 기도했어요. 또 삼촌이 필요한 것을 살 수 있는

돈이 충분하도록, 삼촌이 자신이 사랑받는 사람이란 걸 느낄 수 있도록 기도드렸지요.

이자벨은 기도를 통해 댄 삼촌을 도울 수 있어서 기뻐요. 삼촌을 위해 기도하면서 이자벨은 행복하고 마음이 든든했어요.

이자벨과 언니들은 다른 방법으로도 댄 삼촌을 도와드렸어요. 하루는 다 같이 댄 삼촌의 집 청소를 도와드린 적도 있었어요. 또 어떤 날에는 이자벨과 엄마가 댄 삼촌 댁에 들러 함께 영화도 보았지요.

몇 주가 흐른 뒤, 마침내 아빠가 좋은 소식을 들려주셨어요.

“댄 삼촌이 이번 주에 직장 두 곳에서 면접을 보게 되었다는구나!” 아빠가 말씀하셨습니다.

이자벨은 가슴 가득 행복을 느꼈어요. 이자벨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서 기뻐요. ●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 기도할 수 있을까요?

선지자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의 신앙이
더욱 강해져요!**

(야곱서 4:6 참조)



예수님이 내미시는 도움의 손길



아센, 9세

예 전에 어린이 놀이 센터에 간 적이 있어요. 그곳에서 할 수 있는 놀이 중 하나는 밧줄을 잡고 높다란 언덕을 오르는 거예요. 저는 여러 번 시도를 해 보았는데, 아무리 해도 마지막 몇 발자국을 남겨두고는 번번이 실패를 했어요.

꼭대기에 다다르려고만 하면 꼭 넘어져서 언덕 아래로 미끄러지고 말았거든요.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건 영영 불가능할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때 한 직원분이 재빨리 언덕 위로 올라가 그곳에서 제게 손을 뻗어 주었어요. 그분의 도움으로 저는 손쉽게 꼭대기에 오를 수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예수님이 생각났어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똑같은 일을 해 주시니까요. 우리가 온 힘을 다하는 데도 목표에 다다르지 못할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세요. 이건 제게 매우 영적인 경험이었고, 저는 이 일을 평생 기억할 거예요. ●

이노스의 기도



이노스는 숲속에서 사냥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이노스는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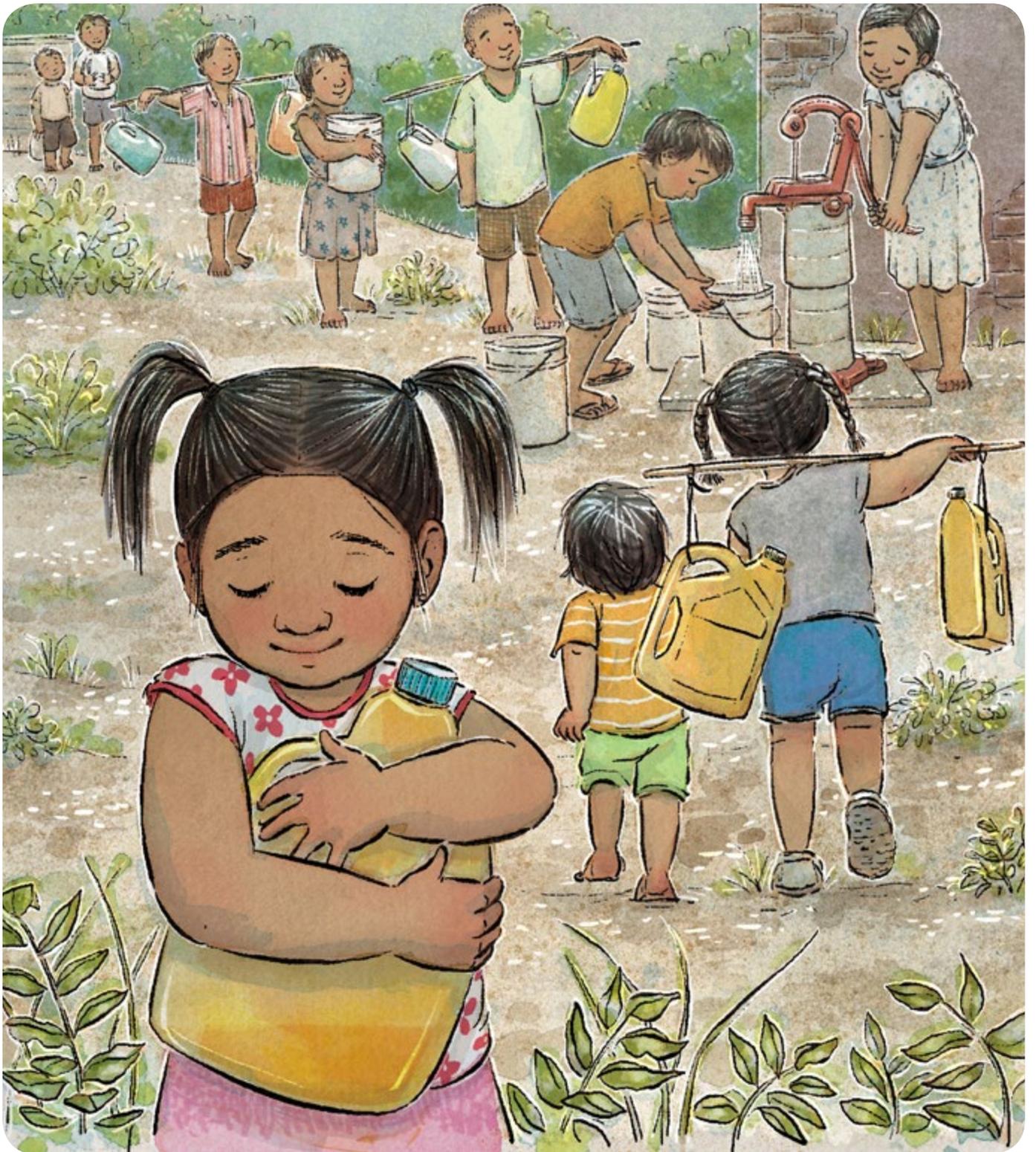


이노스는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드렸지요.
그러자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하나님은 이노스가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있기 때문에 죄를 용서받았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노스는 행복했어요.
이노스는 기도를 멈추지 않았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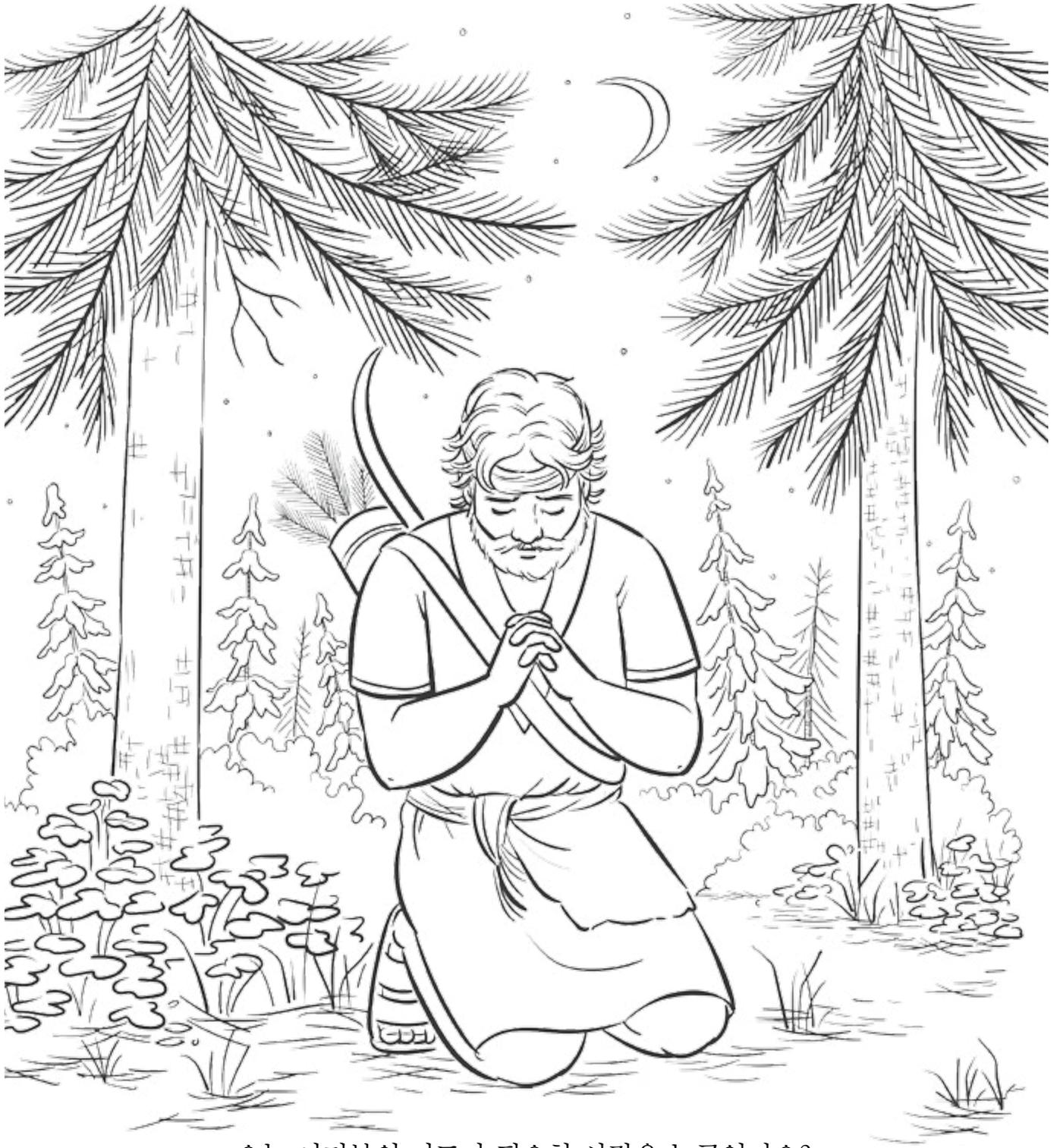
이노스는 친구들을 위해 기도했고,
적들을 위해서도 기도했어요. 그리고
경전에 대해서도 기도드렸어요. 이노스의
기도는 긴 시간 동안 계속되었어요!



나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기도드릴 수 있어요.
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서 그들을 도울 수 있어요. ●

이노스서에서 이 이야기를 읽어 보세요.

이노스는 신앙으로 기도했어요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이번 호 잡지에는 이노스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이노스의 부모는 여러 차례에 걸쳐 이노스에게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부모의 말이 이노스의 마음에 “깊이 스며들었습니다.”(이노스서 1:3) 우리는 우리의 간증을 자녀들과 자주 나눠야 합니다. 우리의 간증이 언제 변화를 일으킬지는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은 이번 호에서 “기도”라는 단어를 몇 번이나 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대화할 때 그분은 기뻐하십니다!

친구들

자녀의 예술 작품이나 경험을 『리아호나』에 보내고 싶습니까?

liahona.ChurchofJesusChrist.org에서 “기사나 피드백 제출”을 클릭하십시오. 아니면 자녀의 이름과 나이, 거주 지역, 그리고 “나 [부모의 이름]은/는 내 자녀가 제출한 자료를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가 교회 잡지, 교회 웹사이트, 소셜미디어 플랫폼, 교회 보고서, 인쇄물, 동영상, 간행물, 훈련 자료에서 사용하는 것을 허가합니다.”라는 내용의 동의문을 liahona@ChurchofJesusChrist.org로 보내 주십시오. 우리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목차

- 친2** 제일회장단으로부터: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어떤 방법으로 말씀하시나요?
- 친4** 앤서니의 꿈
- 친6** 안녕하세요? 여기는 사모아예요!
- 친8** 오늘을 좀 더 행복하게 만들어 줄 음악
- 친10** 건초지와 신권 축복
- 친12** 나도 이노스처럼 기도할 수 있어요
- 친14** 어린이 발표
- 친15** 재미있는 활동: 숨은그림찾기
- 친16** 댄 삼촌을 위해 기도할래요
- 친18** 빛나는 아이디어
- 친19** 예수님이 내미시는 도움의 손길
- 친20** 경전 이야기: 이노스의 기도
- 친23** 색칠하기: 이노스는 신앙으로 기도했어요



책 속에 숨어 있는 리아호나를
찾아보세요!

『친구들』 표지
삽화: 벤 사이먼슨